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국어 제약 형용사 연구

-사전의 문법 정보를 바탕으로-

동 효 예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를 바탕으로, 활용과 부정 결합에서 제약을 보이는 형용사를 ‘제약 형용사’라 명명하고 이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말뭉치 검색을 통해 제약 형용사와 결합된 어미의 종류 및 빈도를 정리함으로써, 실제 사용에서 나타나는 제약의 정도를 밝혔다.

한국어의 제약 형용사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불구형용사’, ‘불완전형용사’, ‘불비형용사’ 등의 이름으로, 활용형이 제한적인 경우만 연구되었다. 본고는 형태적 차원의 제약을 받는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뿐만 아니라 통사적 차원의 제약을 받는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를 고찰하였다.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는 다시 완전히 제약을 받는 ‘(완전) 제약 형용사’와, 언제나 제약되지는 않지만 제약 경향이 있는 형용사를 ‘제약 경향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완전) 제약 형용사’는 오로지 특정한 활용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활용형이 다른 품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 -히’ 파생 부사가 없고, 특정 문형을 요구하지 않는 제약 관형사형을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활용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의 부사형 역시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는 다시 ‘부정 표현과만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와 ‘긍정 표현과도 소수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긍정 표현과도 소수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 중에는 ‘긍정형과 부정형의 의미 차이가 없는 형용사’도 존재한다. 이 현상은 숙어 및 연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의미 쏠림 현상’, ‘의미의 전염’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형용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밀

하게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형용사 내부의 이질성을 보이고, 관형사 및 부사와 같은 인접 품사 범주와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품사론을 정밀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제약 형용사, 제약 활용형, 부정, 관형사, 부사, 전염

학 번 : 2016-26079

차 례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2
1.3. 논의의 구성	7
2. 기본적 논의	9
2.1. 제약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	9
2.1.1. 불완전계열, 불완전 단어, 제약 형용사	9
2.1.2.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	10
2.1.3.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12
2.1.4. 기타 제약 형용사	13
2.2. 제약 형용사의 추출 방법과 목록	15
2.2.1. 제약 형용사의 추출 방법	15
2.2.2. 제약 형용사의 부류별 목록	18
2.3.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의 처리 문제	22
2.3.1. 굳어진 관형사와 제약 형용사	23
2.3.2. 굳어진 부사와 제약 형용사	26
3.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	29
3.1.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29
3.1.1. ‘-르’ 형 형용사	30

3.1.2. ‘-ㄴ’ 형 형용사	34
3.1.3. ‘-는’ 형 형용사	46
3.2. 주로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50
3.2.1. ‘-게’ 형 형용사	51
3.2.2. ‘-고’ 형 형용사	54
3.2.3. ‘-아/어/여’ 형 형용사	56
3.2.4. ‘-아/어/여야’ 형 형용사	58
3.3.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60
3.3.1.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61
3.3.2. 2~3 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63
4.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66
4.1. 부정 표현과만 공기하는 형용사	67
4.1.1. 남부럽다	67
4.1.2. 좀하다	69
4.1.3. 석연하다	70
4.1.4. 마뚝하다	71
4.1.5. 당하다 ⁰¹	72
4.2. 긍정 표현도 소수 가능한 형용사	72
4.2.1. 달갑다	73
4.2.2. 탐탁하다	74
4.2.3. 여의하다	75
4.2.4. 변변하다	76
4.2.5. 별다르다	77
4.2.6. 가당하다	79
4.2.7. 맞갖다	80

4.3. 부정형과 긍정형이 의미 차이가 없는 형용사	81
4.3.1. 대수롭다	81
4.3.2. 칠칠맞다	83
4.3.3. 시답다	85
4.3.4. 여간하다	86
4.3.5. 의미 쓸림 현상, 의미의 전염	87
5. 결론	90
<참고문헌>	91
<中文摘要>	94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를 중심으로, 형태적 차원에 제약을 받는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와 통사적인 차원에 제약을 받는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를 ‘제약 형용사’로 칭하여 이들의 실제 제약 정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약 형용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불구형용사, 불완전형용사, 불비형용사’ 등으로 불려 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들 형용사의 문법 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 (1) 가. 손색없다 (遜色--) 「형용사」
((주로 ‘손색없는’ 꼴로 쓰여))
- 나. 머지않다 「형용사」
((주로 ‘머지않아’ 꼴로 쓰여))

사전의 문법 정보에 의하면 ‘손색없다’는 주로 ‘손색없는 실력, 손색없는 재능’처럼 ‘-는’ 관형사형으로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우로 손색없을 미모’처럼 ‘-ㄴ’과 많이 결합하기도 한다. ‘머지않다’는 주로 ‘머지않아 소식이 올 것이다’처럼 ‘-아’ 부사형으로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머지않은 미래, 머지않은 시기’처럼 ‘-ㄴ’과 많이 결합하기도 한다. 사전에서 이러한 예외 경우를 고려하여 ‘주로, 흔히’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본고는 이러한 예외 경우가 단어에 따라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제약 형용사에는 이들 외에도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를 포함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런 형용사의 문법 정보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2) 가. 남부럽다 「형용사」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나. 별다르다(別---) 「형용사」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남부럽다’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 남부럽지 않다’처럼 항상 부정 표현과 공기한다. ‘별다르다’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다, 별다른 일이 없다’처럼 부정어와 함께 쓰인다. 이들의 문법 정보에도 ‘주로’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있어, 긍정 표현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1)과 (2)와 같이 활용과 부정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를 제약 형용사 중 문법적 제약을 가진 두 부류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록을 제시한 뒤에, 말뭉치에 나타난 실제 쓰임을 살핌으로써 사전 기술과의 일치 여부와 제약의 정도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제약 형용사를 사전에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본고의 제약 형용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제약 동사와 함께 ‘불구용언, 불완전용언, 불비용언’등으로 명명하여 동사 위주로 다루어 왔다.

최현배(1975)는 움직씨 가운데에, 그 으뜸되는 끝바꿈법에 벗어나며 끝바꿈의 모든 꼴이 갖추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몇 가지의 꼴만이 쓰이는 움직씨를 모자란 움직씨(不具動詞)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종결어미와 경어법을 다루면서, ‘달다, 닳다, 더불다, 가로다’ 네 가지 동사만을 제시하였다. 고영근(1987)은 이런 불완전

개념을 용언 이외에 체언에도 응용하여 불완전계열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그는 주로 불완전계열을 보충법과 대조하여 불완전계열은 어형변화가 일어날 때 접사를 두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특정한 접사 앞에서 어기 전체가 바뀌는 보충법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두 개념을 확대하거나 혼동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최현배(1975)에서 제시한 소위 불구동사인 ‘달다’는 ‘주다’와 상보적인 분포가 있어서 보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연구는 동사와 체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형용사에 대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김영옥(1994)는 실제로 활용형이 불과 2-3개 이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불완전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완전계열을 용언류, 체언류로 나눠서 다루었다. 그러나 세부 분류 및 목록은 완전하지 않았다.

유현경(1998)은 서술형으로 쓰이지 않으면서 주로 몇 개의 활용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를 ‘불구형용사’로 보았다. 그러나 유현경(1998: 267)은 ‘마뜩하다, 대수롭다, 여간하다’는 특정 몇 개의 활용형만 취하고 주로 부정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제약이 있지만 불구형용사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이들이 서술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형용(2002)의 불완전계열은 김영옥(1994)의 불완전계열을 통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한정된 구성에만 쓰이는 형용사에서 부정과 함께 쓰이는 형용사도 불완전계열로 간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미진(2008)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활용형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를 망라하여 활용형이 1개인 용언, 2개인 용언, 3개인 용언으로 나누어 목록을 보완하고 부류를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형용사의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현정(2010), 박현정 · 김정남(2010)은 형용사의 제약 활용형은 ‘-으(ㄴ)/-는’ 결합형, ‘-게’ 결합형, 그리고 ‘-고, -(으)년, -여서, -여야’ 형태를 포함한 ‘기타 결합형’으로 나눴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의 목적으로 출발한 연구이므로 제약 형용사들의 예외 활용형들을 살피지 않았다.

김건희(2016)은 유형론적 관점으로 한국어의 관형사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중에서 관형사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들의 제한적인 활용형을 ‘굳은 관형사형’으로

부르며 형태, 통사,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제약 형용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배주채(2018)이다. 배주채(2018)은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와 동사들을 ‘불비용언’으로 부르며 이런 용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용언들의 예외 활용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어휘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 선행 연구별의 제약 형용사 목록

선행 연구	제약 형용사	
김영욱(1994)	수없다(-는) 서슴없다(-는), 쓸모없다(-는), 수많다(-ㄴ), 여간하다(-ㄴ, -어서), 괜하다(-ㄴ), 크나크다(-ㄴ)	
유현경(1998)	공연하다(-ㄴ), 가만하다(-ㄴ), 주제넘다(-ㄴ, -게), 선부르다(-ㄴ, -게), 다시없다(-는), 마지못하다(-어, -어서), 아낌없다(-는), 진정하다(-ㄴ, -게), 막다르다(-ㄴ), 배다르다(-ㄴ), 난데없다(-는), 괜하다(-ㄴ), 하고많다(-ㄴ)	
최형용(2002)	어미 결합형 불안전 계열(형용사만 제시 ¹⁾)	[X아]형: 머지않아 [X게]형: 덩그맣게, 때맞게, 발발게, 증빨나게, 참따랑게, 참땅게 [X는]형: 괜한, 막다른, 머니먼, 생때같은, 수많은, 아낌없는, 열띤, 입바른, 자랑찬, 진정한, 철면피한, 크나큰, 피비린, 허구한 [X는/이]형: 더없는/더없이, 수없는/수없이, 아낌없는/아낌없이, 서슴없는/서슴없이, 쓸모없는/쓸모없이 [X게/는]형: 막되게/막된, 참답게/참다운 [X어서/ㄴ]형: 여간해서/여간한 [X게/니]형: 땡그랄게/땡그라니
	특정 체언 논항을 요구하는 제약 형용사	궁금하다 ⁰² (입이 궁금하다), 부르다 ⁰² (배가 부르다),
	부정 후행 요소와 한 정적인 결합하는 제	맞갓다(맞갓지 않다), 석연하다(석연하지 않다, 석연하지 못하다), 시답다(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약 형용사	
강미진(2008)	일반적 제약 형용사	가경하다(-ㄹ), 가공하다03(-ㄹ), 가괴하다(-ㄹ), 가교하다01(-ㄹ), 가기하다02(-ㄹ), 가만하다(-ㄹ), 가분하다04(-ㄹ), 가취하다2)(-ㄹ), 가탄하다01(-ㄹ), 갈데없다(-는), 강근하다(-ㄴ), 괜하다(-ㄴ), 극상하다(-어서, 어야), 기나길다(-ㄴ), 깎아지르다(-ㄴ), 꽃답다(-ㄴ), 끊임없다(-는), 난데없다(-는), 눈길다(-게), 늘씬하다01(-게), 다직하다(-어서, -어야, -면), 땡그랗다(-게), 더없다(-는), 덩그맣다(-게), 때맞다(-게), 마뚝하다(-지), 마침맞다(-게, -ㄴ), 막다르다(-ㄴ), 막되다(-게, -ㄴ), 맞갖다(-지), 머니멀다(-ㄴ), 머지않다(-아), 무정처하다(-고), 무조건하다(-고), 미구하다(-여), 발발다(-게), 배다르다(-ㄴ), 버젓하다(-게, -ㄴ), 번질나다(-게), 볼메다(-ㄴ), 비근하다(-ㄴ), 빛바래다(-ㄴ), 뽀질나다(-게), 뽀찔나다(-게), 사사롭다(-ㄴ), 생때같다(-ㄴ), 석연하다(-지), 손색없다(-는), 수많다(-ㄴ), 수없다(-는), 시답다(-지), 심심하다03(-ㄴ), 심심찮다(-게), 아낌없다(-는), 여복하다(-어야, -면), 여하하다(-ㄴ), 열 띠다(-ㄴ), 영광되다(-ㄴ), 올목갓다(-게), 입바르다(-ㄴ), 자랑차다(-ㄴ), 주요하다(-ㄴ), 종뿔나다(-게), 지다06(-고), 진정하다(-ㄴ), 참답다(-게, -ㄴ), 참따랗다(-게), 참땡다(-게), 철면피하다(-ㄴ), 특정하다(-ㄴ), 피어리다(-ㄴ), 한없다(-는), 허구하다(-ㄴ) 가늘다(-게), 가마득하다(-게), 가말다(-게), 가뻘다(-게), 갈잡다(-ㄴ), 걸다(-게), 곱다02(-게), 귀하다(-게, -ㄴ), 급하다(-게), 까마득하다(-게), 까마아득하다(-게), 까말다(-게), 깨끗하다(-게), 달다07(-게), 더럽다(-게), 동일하다(-ㄴ), 멀다02(-게), 목마르다(-게), 못하다(-어도), 무섭다(-게), 미안하다(-지만, -오만), 바쁘다(-게), 방불하다(-게), 부단하다(-ㄴ), 비싸다(-게), 뽀족하다(-ㄴ), 새까말다(-게), 새카말다(-게), 새파랗다(-게, -ㄴ), 서투르다(-게), 시꺼멓다(-게), 시원하다(-지), 시원스럽다(-지), 아니다(-ㄹ까), 아무러하다(-ㄴ), 아무러하다(-게나), 아무렇다(-게나), 애꿎다(-ㄴ), 어둡다(-ㄴ), 없다01(-는), 웬만하다(-어서는, -면, -ㄴ), 일정하다(-ㄴ), 일정하다(-게, -ㄴ), 작다01(-게는), 잘다(-ㄴ), 적당하다02(-게, -ㄴ), 정하다04(-게), 좋다01(-게), 칠칠하다(-지), 크다01(-게(는)), 툭툭하다(-게), 퍼렇다(-게), 피비리다(-ㄴ) < 하얗다(-게), 허영다(-게)
	제한적 제약 형용사	가늘다(-게), 가마득하다(-게), 가말다(-게), 가뻘다(-게), 갈잡다(-ㄴ), 걸다(-게), 곱다02(-게), 귀하다(-게, -ㄴ), 급하다(-게), 까마득하다(-게), 까마아득하다(-게), 까말다(-게), 깨끗하다(-게), 달다07(-게), 더럽다(-게), 동일하다(-ㄴ), 멀다02(-게), 목마르다(-게), 못하다(-어도), 무섭다(-게), 미안하다(-지만, -오만), 바쁘다(-게), 방불하다(-게), 부단하다(-ㄴ), 비싸다(-게), 뽀족하다(-ㄴ), 새까말다(-게), 새카말다(-게), 새파랗다(-게, -ㄴ), 서투르다(-게), 시꺼멓다(-게), 시원하다(-지), 시원스럽다(-지), 아니다(-ㄹ까), 아무러하다(-ㄴ), 아무러하다(-게나), 아무렇다(-게나), 애꿎다(-ㄴ), 어둡다(-ㄴ), 없다01(-는), 웬만하다(-어서는, -면, -ㄴ), 일정하다(-ㄴ), 일정하다(-게, -ㄴ), 작다01(-게는), 잘다(-ㄴ), 적당하다02(-게, -ㄴ), 정하다04(-게), 좋다01(-게), 칠칠하다(-지), 크다01(-게(는)), 툭툭하다(-게), 퍼렇다(-게), 피비리다(-ㄴ) < 하얗다(-게), 허영다(-게)
박현정(2010),	제약 활용	가경하다(-ㄹ), 가괴하다(-ㄹ), 가교하다(-ㄹ), 가기하다(-ㄹ), 갈

박현정, 김정남 (2010)	형을 가진 형용사	데없다(-는), 강근하다(-ㄴ), 관하다(-ㄴ), 괜하다(-ㄴ), 극상하다(-어야, 어서), 기나길다(-ㄴ), 꽃답다(-ㄴ), 끊임없다(-는), 난데없다(-는), 다직하다(-어야, 어서, -면), 더없다(-는), 때맞다(-게), 마지못하다(-어), 마침맞다(-ㄴ, -게), 막다르다(-ㄴ), 막되다(-ㄴ, -게), 머나멀다(-ㄴ), 머지않다(-아), 무정처하다(-고), 무조건하다(-고), 배다르다(-ㄴ), 버젓하다(-ㄴ, -게), 번질나다(-게), 볼메다(-ㄴ), 비근하다(-ㄴ), 빛바래다(-ㄴ), 뻥질나다(-게), 사사롭다(-ㄴ), 손색없다(-는), 수많다(-ㄴ), 수없다(-는), 심심찮다(-게), 심심하다(-ㄴ), 아낌없다(-는), 여복하다(-어야, -면), 여하하다(-ㄴ), 열띠다(-ㄴ), 영광되다(-ㄴ), 울목갓다(-게), 자랑차다(-ㄴ), 주요하다(-ㄴ), 진정하다(-ㄴ), 참답다(-ㄴ, -게), 참따랄다(-게), 참딸다(-게), 철면피하다(-ㄴ), 특징하다(-ㄴ), 피어리다(-ㄴ), 한없다(-는), 허구하다(-ㄴ)
김건희(2016)	‘-을’	가경하다, 가공하다, 가괴하다, 가교하다, 기기하다, 가분하다
	‘-는’	간단없다, 갈데없다, 끊임없다, 난데없다, 더없다, 손색없다, 수없다, 아낌없다
	‘-은’	강근하다, 괜하다, 기나길다, 꽃답다, 동일하다, 막다르다, 머나멀다, 무단하다, 배다르다, 볼먹다, 볼메다, 비근하다, 빛바래다, 사사롭다, 생때같다, 수많다, 심심하다, 여하하다, 열띠다, 영광되다, 자랑차다, 잘다, 주요하다, 진정하다, 철면피하다, 특징하다, 피어리다, 허구하다
배주채(2018)		괜하다, 땡그랄다, 마지못하다, 막되다, 머지않다, 수많다, 아낌없다, 열띠다, 크나크다, 피비리다, 더없다, 때맞다, 막다르다, 머나멀다, 발발다, 생때같다, 입바르다, 전정하다, 참따랄다, 철면피하다, 허구하다, 간단없다, 갈데없다, 난데없다, 다직하다, 때아니다, 마침맞다, 무작정하다, 무조건하다, 배다르다, 버젓하다, 뻥질나다, 사사롭다, 손색없다, 심심찮다, 여복하다, 오죽하다, 참답다, 허영다

이상 언급된 제약 형용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활용형에 집중하여 제

- 1) 최형용(2002)의 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도 있다. 본고는 사전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므로 사전에 있는 형용사만 제시한다.
- 2) 강미진(2008)은 ‘가취하다(可取--)’의 의미를 ‘취할 만하다. 또는 쓸 만하다.’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가취하다02(可取--)’는 동사로 간주했다. 본고는 사전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 ‘가취하다(可取--)’를 논의하지 않는다.

약 형용사의 존재 자체를 밝히거나,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록을 확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본고는 활용형이 제한이 있는 제약 형용사뿐만 아니라,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제약 형용사들을 통틀어서 연구하고자 한다. 각 형용사가 받는 제약이 다르므로 그룹을 나누어서 관찰하면 더 편리하다. 따라서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는 어미별로 그룹을 나누고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는 부정과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눠서 형용사들이 제약을 받는 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제약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 제약 형용사의 추출 방법과 부류별 목록, 그리고 제약 형용사의 품사 처리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2.1.에서는 제약 형용사의 유형을 밝히고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와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를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2.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들로 간주할 만한 형용사를 《표준국어대사전》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그 목록을 정리하고 제시한다. 2.3에서는 제약 형용사 중에서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의 품사 처리 방법에 대해 논한다.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라 제약 활용형들을 관형사 혹은 부사로 간주할 기준을 검토한 후에 제시한다.

3장에서는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를 연구하고자 한다. 말뭉치의 예문을 통해서 이들의 실제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이 정말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 기술과 같이 제약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밝힌다. 제약이 있는 것을 제약 정도에 따라 ‘제약 형용사, 제약 경향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2.3에 검토한 기준에 따라 제약 활용형을 관형사 혹은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검토한다.

4장에서는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를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말뭉치를 통해 이들의 실제 활용 양상을 조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 기술과 일치하는지를 밝힌다. 이들이 긍정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이들을 ‘부

정 표현과만 공기하는 형용사, 긍정 표현도 소수 가능한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장의 제약 형용사 중에 긍정형으로 쓰이지만 부정형과 의미 차이가 없는 형용사도 발견되어 4.3.에서 제시하고 이런 현상을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쏠림 현상'과 '의미 전염'을 소개한다.

5장은 결론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의 계획을 제시한다.

2. 기본적 논의

2.1. 제약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

본고에서 다루는 제약 형용사의 상당수는 선행 연구에서 불완전형용사로 많이 언급되어 왔다. 본 절에서 먼저 불완전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를 출발하여 ‘제약 형용사’라는 술어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약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를 밝힐 것이다.

2.1.1. 불완전계열, 불완전 단어, 불완전형용사, 제약 형용사

불완전계열에 대한 개념은 서양 학자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먼저, Bloomfield(1933: 223)에서는 굴절 패러다임에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can, may, shall, will, must’는 to 부정사를 가질 수 없고, ‘must’는 과거 시제가 없으며, ‘scissors’는 단수형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불완전계열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Beard(1981)(Bybee 1985: 85 재인용)¹⁾은 영어의 불완전계열이 명사에 존재한다고 보고, 복수형만 존재하는 pants, oats, measles, pliers와 단수형만 존재하는 air, fleece, peace, contemplation, cleanliness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제시한 ‘불완전계열’은 특정한 어휘부류에 속한 단어들이 특정한 곡용이나 활용 형태가 결여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어휘 측면의 불완전 단어(defective word)에 대한 개념은 Baerman et al.(2010:

1) 이는 Beard, Robert E.가 1981년 뉴욕에서 열린 미국언어학회의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원문 제목은 ‘The plural as a lexical derivation(word formation)’이다.

89)에서 정의한 바가 있다. 그는 불완전 단어를 ‘패러다임이 그의 품사에 속하는 다른 단어에 비해 불완전한 단어’로 정의함으로써 ‘불완전’의 상대성을 밝혔다. 그는 라틴어의 불완전동사 aio(‘to say’)의 예를 들어, 일부 시제와 일부 인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완전 단어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불완전계열이나 불완전 단어라는 개념은 동사류의 경우 시제, 인칭 등의 활용 패러다임에서 일부만 허용되는 부류들, 명사류의 경우는 단수, 복수와 같은 곡용 패러다임에서 일부 형태만 가지는 부류들 가리켜 왔음이 확인된다. 한국어 형용사에서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일반 형용사보다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어 형용사는 그 자체로 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불완전과 대비되는 ‘완전 형용사’가 드물다. 따라서 본고는 ‘불완전형용사’보다 ‘제약 형용사’라는 술어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약 형용사’를 택하였다. 다음은 활용형 및 부정 결합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 형용사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1.2.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

먼저,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제약 형용사의 첫 번째 유형인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에 대해 살펴보자. 형용사는 청유형과 명령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결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다. 연결어미의 경우, 김정남(2005: 75)에 제시된 (1)의 연결어미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결어미들과 두루 결합이 가능하다.

(1) 가. 계기성: -자, -자마자, -고서, -어서²⁾

2) 김정남(2005: 79)에 의해 계기성이 나타난 ‘-어서’는 과정성의 의미를 지닌 동사 뒤에 연결되어 계기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가. 철수가 자라서 의사가 될 것이다.
가’. 철수가 커서 의사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가’)의 ‘크다’는 형용사 ‘크다’가 아니라 과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동사 ‘크다’라

- 나. 목적성: -으러, -고자, -으려고, -으려다
- 다. 계기성+목적성: -느라고

보통의 형용사들은 위에서 설명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를 제외한 다른 활용어미들과 결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다음 (2)의 예를 보자.

- (2) 가. 좋다, 좋고, 좋니, 좋아서, 좋은데, 좋지만, 좋은, 좋게...
- 나. 길다, 길고, 기니, 길어서, 긴데, 길지만, 긴, 길게...

(2가)의 형용사 어간 ‘ 좋- ’과 (2나)의 형용사 어간 ‘ 길- ’은 종결어미 ‘ -다 ’, 연결어미 ‘ -고 ’, ‘ -니 ’ 등 다양한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형용사 중에서는 오로지 한두 개의 활용형으로만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먼저, 관형사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형용사 부류가 존재한다.

- (3) 가. 가경할(可驚--)/*가경하고/*가경한/*가경해서/*가경하며...
- 나. 더없는/*더없고/*더없어서/*더없으며...
- 다. 괜한/*괜하고/*괜해서/*괜하며...

(3)에서 제시한 형용사들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만 나타난다. (3가)의 ‘ 가경하- ’는 오직 관형사형 어미 ‘ -ㄴ ’과만 결합하고, (3나)의 ‘ 더없- ’은 오직 관형사형 어미 ‘ -는 ’만을 취하며, (3다)의 ‘ 괜하- ’는 관형사형 어미 ‘ -ㄴ ’과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부사형 어미만을 취하는 형용사 부류도 존재한다.

- (4) 가. 울목갓게/*울목갓고/*울목갓은/*울목갓다...
- 나. 무조건하고/*무조건하게/*무조건한/*무조건하다...
- 다. 미구하여(未久--)/*미구하게/*미구하고/*미구한/*미구하다...

고 한다.

라. 극상해야(極上--)/*극상하게/*극상하고/*극상한/*극상하다...

(4)에 제시한 형용사들은 모두 부사형 어미만을 취하고 관형사형 및 서술형 어미를 취할 수 없다. (4가)에 제시된 ‘올목갓-’와 같이 부사형 어미 ‘-게’만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가 존재하고 (4나)의 ‘무조건하-’와 같이 부사형 어미 ‘-고’만 같이 쓰인 형용사가 있다. 그리고 (4다)의 ‘미구하-’처럼 부사형 어미 ‘-아/어/여’만 취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고, ‘극상하-’처럼 부사형 어미 ‘-어야’만 취할 수 있는 형용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도 있다.

(5) 가. 때아닌/때아니게/*때아니고/*때아니며/*때아니어서/*때아니다...

나. 다직하면³⁾/다직해서/다직해야/*다직하게/*다직하고/*다직한/*다직하다...

(5가)의 ‘때아니-’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ㄴ’과 부사형 어미 ‘-게’와만 결합하는 형용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5나)의 ‘다직하-’와 같이 ‘-(으)면’, ‘-어서’, ‘-어야’ 세 가지 어미만 취할 수 있는 형용사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는 (3), (4), (5)처럼 제한적인 활용형만 쓰이는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사전에서 활용형이 제한적인 것으로 기술된 것들의 목록을 뽑아서, 이들이 실제 쓰임에서도 제약 형용사인지를, 그 제약에 정도 차이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2.1.3.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이어서 본고가 다룰 제약 형용사의 두 번째 유형인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보통의 형용사가 긍정문, 장형 부정 및 단형 부정문, 수사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제한적인 통사적 환경에서만 사용된다. 아

3) ‘다직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껏 한다고 하면”, “기껏 많이 잡아서”, “기껏 많다고 하여야”의 뜻으로 쓰는 말’라는 의미를 가진다.

래 (6)에 제시된 ‘예쁘-’, ‘무섭-’은 긍정문, 장형 부정 및 단형 부정문,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 (6) 가.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예쁘지 않아. 그녀는 안 예뻐. 그녀가 예뻐?
나. 나는 무서워.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안 무서워. 내가 무서워?

반면에, 일부 형용사는 부정문에서만 사용된다.

- (7) 가. 나는 그의 행동이 마땅하지 않다.
가'. *나는 그의 행동이 마땅하다.
가". 나는 그의 행동이 마땅할 것 같아?
가"". *나는 그의 행동이 안 마땅하다.

(7가, 가', 가")에 제시된 형용사 ‘마땅하다’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때, 오직 장형 부정문과 수사의문문으로만 쓰일 수 있다.

- (8) 가. 그 마땅치 않은 시선으로부터 나는 그 여자의 나에 대한 인식을 읽는다.
가'. *그 안 마땅한 시선으로부터 나는 그 여자의 나에 대한 인식을 읽는다.
나. 남북정상회담도 마땅지 않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남북정상회담도 안 마땅하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8가, 가', 나, 나')을 보면 ‘마땅하다’는 관형사형, 부사형으로 쓰일 때도 단형 부정과 결합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 최형용(2002: 193)에서는 불완전계열을 단어의 차원을 넘어서 통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러한 부정어 혹은 부정어 상당의 후행 요소와 한정적인 결합 양상을 보여주는 단어도 불완전계열로 간주한 바가 있다. 본고도 이러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들의 목록을 확보하여 그들이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4. 기타 제약 형용사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에는 활용 제약, 부정 표현과의 공기 선호 외에 다른 제약도 기술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공기하는 명사, 동사의 의미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들이다. 이런 형용사들은 공기하는 명사 혹은 동사와 항상 연어처럼 같이 쓰인다. 이러한 사용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형용사들의 개별 의미 때문이므로 여기서 목록과 문법 정보만 제시하고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표 1> 공기하는 명사, 동사의 의미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의 목록 및 문법 정보

표제어	문법 정보
고프다	'배'를 주어로 하여
궁금하다 ⁰²	주로 '입'과 함께 쓰여
부시다 ⁰²	주로 '눈'과 함께 쓰여
남짓하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널따랄다	실제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널찍하다	실제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삼삼하다 ⁰¹	주로 '눈'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쓰여
술다 ⁰⁴	'귀'와 함께 쓰여
쉽직하다	일부 명사 뒤에 쓰여
호대하다	주로 '기세', '세력', '은혜' 따위의 뜻을 가진 명사와 함께 쓰여
늘씬하다	'때리다', '맞다' 따위의 동사와 함께 쓰여
만무하다	흔히 '리 만무하다' 구성으로 쓰여

두 번째 유형은 문장 종결 유형에 제약을 가진 형용사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문장 종결 유형으로만 쓰인 형용사들은 '안득하다, 어렵하다, 오죽하다, 여복하다' 4개가 있다.⁴⁾ 이들은 말뭉치에서 평서문으로 쓰인 예가 전혀 없다. 여기서 이들의 표제어와 문법 정보를 제시하고 본문에서도 따로 다루지 않는다.

<표 2> 문장 종결 유형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의 목록 및 문법 정보

표제어	문법 정보
-----	-------

4) 주로 부정문과 수사의문문으로 쓰이는 '당하다⁰¹, 대수롭다'는 모두 주로 부정 표현으로 쓰이는 형용사로 나뉘고 여기서 문장 종결 유형에 제약이 있는 형용사 부류에 배제한다.

안득하다(安得--)	흔히 의문형으로 쓰여
어려하다	흔히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랴’ 따위의 꼴로 의문문에 쓰여
오죽하다	흔히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랴’ 따위의 꼴로 의문문에 쓰여
여복하	흔히 ‘여복하면’, ‘여복해야’ 꼴로 의문문에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세 번째는 문체에 제약이 가진 형용사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유하다01(有--)’ 하나뿐이다. ‘유하다01(有--)’는 주로 한문 문체에 쓰여 ‘있다’의 뜻을 나타낸다고 기술하였다. ‘유하다01(有--)’는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아서 본문에서도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2.2. 제약 형용사의 추출 방법 및 목록

2.2.1. 제약 형용사의 추출 방법

앞 절에서 제시한 제약 형용사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형용사 기술을 참고하였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사전에서 17,463개의 형용사 목록을 추출한 뒤에, ‘문법 정보’를 이용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약 형용사를 선별하였다.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들의 문법 정보는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형을 갖는다.

<표 3>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의 문법 정보 유형

표제어	문법 정보
간단-없다(間斷--)	‘간단없는’ 꼴로 쓰여
괜-하다	주로 ‘괜한’ 꼴로 쓰여
깎아지르다	주로 ‘깎아지른(듯하다)’ 구성으로 쓰여
꽃-답다	흔히 ‘꽃다운’ 꼴로 쓰여
늘씬-하다01	‘늘씬하게’ 꼴로 ‘때리다’, ‘맞다’ 따위의 동사와 함께 쓰여
다직-하다	주로 ‘다직하면’, ‘다직해서’, ‘다직해야’ 꼴로 쓰여

때-아니다	주로 '때아닌', '때아니게' 꼴로 쓰여
막-되다	흔히 '막된'이나 '막되게' 꼴로 쓰여
여북-하다	흔히 '여북하면', '여북해야' 꼴로 의문문에 쓰여
오죽-하다	흔히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랴' 따위의 꼴로 의문문에 쓰여

그런데 다의어의 경우 아래 (9)와 같이 전체 의항이 아니라 부분 의항에만 활용 제약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9) 더럽다 [더:-따]

「형용사」

「1」 때나 찌꺼기 따위가 있어 지저분하다.

¶ 더러운 손/더러운 물/더러운 그릇/때가 끼어 옷이 더럽다.

「2」 언행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인색하다.

¶ 더러운 행실/더러운 심보.

「3」 못마땅하거나 불쾌하다.

¶ 더럽고 치사해서 이 일을 그만두겠네./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군.

「4」 ((주로 '더럽게' 꼴로 쓰여))순조롭지 않거나 고약하다.

¶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더럽게 되어 간다./저런 악질과 한방을 쓰게 되다니 이번엔 아주 더럽게 걸렸군.

「5」 ((주로 '더럽게' 꼴로 쓰여))어떤 정도가 심하거나 지나치다.

¶ 날씨 한번 더럽게 덥네./차도 더럽게 안 오네.

(9)를 보면 '더럽다'는 「1」 ~ 「3」의 의항 내부에는 활용 제약이 없지만 「4」 ~ 「5」의 의미일 때는 부사형 '더럽게'로만 쓰이는 제약을 가진다. 이러한 형용사는 다의어로 특정한 의미로 쓰일 때에는 활용 제약이 있으나 다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완전한 활용 패러다임을 지닌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전체적으로 활용 제약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여러 의항을 지닌 다의어라도 (10)과 같이 모든 의항에서 제한적인 활용형을 가진다면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10) 생때-같다 (生---) [---같따] 「형용사」 ((주로 ‘생때같은’ 꼴로 쓰여))

「1」 아무 탈 없이 멀쩡하다.

¶ 생때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신이 되었다.

「2」 공을 많이 들여 매우 소중하다.

¶ 생때같은 내 돈을 다 날렸다./늙은 부모 공양하고 생때같은 자식들 안 굶기
자는 일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자식 된 도리고 부모 된 도립니다.《송기숙,
암태도》

(10)의 ‘생때같다’는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만 형태는 ‘생때같은’ 한 가지로만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판단에 따라 다의어로 처리하고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의 문법 정보는 서술이 아주 다양하다. 이들의 문법 정보들은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않다, 못하다, 없다’ 등 부정어와 함께 쓰여’, ‘-지 못하다, -지 않다’의 구성으로 쓰여’,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 등의 방식으로 서술된다.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다의어의 경우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항에서 제약을 가진 경우만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인정한다.

<표 4>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의 문법 정보 유형

표제어	문법 정보
남-부럽다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당-하다 ⁰¹ (當---)	흔히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
대수-롭다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
미덥-하다	주로 ‘않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맞-갓다	주로 ‘맞갓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별-다르다 (別---)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시답다 (實▽---)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석연하다 (釋然---)	흔히, 뒤에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여간-하다 (如干---)	‘아니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 앞에 쓰여
좁-하다	뒤에 ‘않다’, ‘못하다’, ‘없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칠칠-맞다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여

2.2.2. 제약 형용사의 부류별 목록

앞에서 제시한 추출 방법에 따라 제약 형용사의 부류별 목록,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를 제시한다. 먼저,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는 아래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69개가 있다.

<표 5>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의 목록 및 문법 정보

표제어	문법 정보
가경하다	주로 '가경할' 꼴로 쓰여
가공-하다03 (可恐--)	주로 '가공할' 꼴로 쓰여
가괴-하다 (可怪--)	주로 '가괴할' 꼴로 쓰여
가교-하다01 (可教--)	주로 '가교할' 꼴로 쓰여
가기-하다02 (可期--)	주로 '가기할' 꼴로 쓰여
가분하다04 (可憤--)	주로 '가분할' 꼴로 쓰여
간단-없다 (間斷--)	'간단없느' 꼴로 쓰여
갈데-없다	주로 '갈데없느' 꼴로 쓰여
강근-하다 (強近--)	주로 '강근한' 꼴로 쓰여
괜-하다	주로 '괜한' 꼴로 쓰여
극상-하다 (極上--)	'극상해야' 꼴로 쓰여
기나-길다	주로 '기나긴' 꼴로 쓰여
깎아지르다	주로 '깎아지른 (듯하다)' 구성으로 쓰여
꽃-답다	흔히 '꽃다운' 꼴로 쓰여
끓임-없다	흔히 '끓임없느' 꼴로 쓰여
난데-없다	흔히 '난데없느' 꼴로 쓰여
늘씬-하다01	'늘씬하게' 꼴로 '때리다', '맞다' 따위의 동사와 함께 쓰여
다직-하다	주로 '다직하면', '다직해서', '다직해야' 꼴로 쓰여
더-없다	주로 '더없느' 꼴로 쓰여
덩그렇다	주로 '덩그렇게' 꼴로 쓰여
동그말다	주로 '동그말게' 꼴로 쓰여
때-맞다	주로 '때맞게' 꼴로 쓰여
때-아니다	주로 '때아닌', '때아니게' 꼴로 쓰여
마지-못하다	흔히 '마지못해' 꼴로 쓰여
마침-맞다	흔히 '마침맞게', '마침맞은' 꼴로 쓰여
막-다르다	주로 '막다른' 꼴로 쓰여
막-되다	흔히 '막된'이나 '막되게' 꼴로 쓰여
머니-멀다	주로 '머니먼' 꼴로 쓰여
머지-않다	주로 '머지않아' 꼴로 쓰여
무단-하다 (無斷--)	주로 '무단한' 꼴로 쓰여

무작정-하다 (無酌定--)	흔히 '무작정하고' 꼴로 쓰여
무정처-하다 (無定處--)	'무정처하고' 꼴로 쓰여
무조건-하다 (無條件--)	흔히 '무조건하고' 꼴로 쓰여
미구-하다01 (未久--)	주로 '미구하여' 꼴로 쓰여
배-다르다	주로 '배다른' 꼴로 쓰여
버젓-하다	주로 '버젓하게', '버젓한' 꼴로 쓰여
번질-나다	주로 '번질나게' 꼴로 쓰여
불-먹다	'불먹은' 꼴로 쓰여
불-메다	'불멘' 꼴로 쓰여
비근-하다 (卑近--)	주로 '비근한' 꼴로 쓰여
빛-바래다	주로 '빛바랜' 꼴로 쓰여
뻘질-나다	주로 '뻘질나게' 꼴로 쓰여
뻘찝-나다	주로 '뻘찝나게' 꼴로 쓰여
사사-롭다 (私私--)	흔히 '사사로운' 꼴로 쓰여
생때-같다 (生--)	주로 '생때같은' 꼴로 쓰여
손색-없다 (遜色--)	주로 '손색없는' 꼴로 쓰여
수-많다 (數--)	주로 '수많은' 꼴로 쓰여
수-없다 (數--)	흔히 '수없는' 꼴로 쓰여
심심-하다03 (甚深--)	주로 '심심한' 꼴로 쓰여
심심찮다	흔히 '심심찮게' 꼴로 쓰여
아낌-없다	주로 '아낌없는' 꼴로 쓰여
여복-하다	흔히 '여복하면', '여복해야' 꼴로 의문문에 쓰여
여하-하다 (如何--)	흔히 '여하한' 꼴로 쓰여
열-띠다 (熱--)	흔히 '열띤' 꼴로 쓰여
영광-되다 (榮光--)	주로 '영광된' 꼴로 쓰여
오죽-하다	흔히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랴' 따위의 꼴로 의문문에 쓰여
올목-갓다	주로 '올목갓게' 꼴로 쓰여
입-바르다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여
자랑-차다	주로 '자랑찬' 꼴로 쓰여
주살-나다	주로 '주살나게' 꼴로 쓰여
주요-하다 (主要--)	주로 '주요한' 꼴로 쓰여
진정-하다01 (眞正--)	주로 '진정한' 꼴로 쓰여
참-답다	주로 '참다운', '참답게' 꼴로 쓰여
참-따랄다	주로 '참따랄게' 꼴로 쓰여
참-딸다	주로 '참딸게' 꼴로 쓰여
철면피-하다 (鐵面皮--)	주로 '철면피한' 꼴로 쓰여
특정-하다 (特定--)	주로 '특정한' 꼴로 쓰여
피-어리다	주로 '피어린' 꼴로 쓰여
한-없다 (限--)	주로 '한없는' 꼴로 쓰여
허구-하다01 (許久--)	'허구한' 꼴로 쓰여

<표 5>의 문법 정보를 살펴보면 주로 '...꼴로 쓰여'라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

다. 앞에 주로 쓰이는 활용형의 기술에 따라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는 크게 관형사형, 부사형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 나아가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들은 관형사형 어미 ‘-ㄴ’, ‘-ㄷ’, ‘-는’에 따라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각각 ‘-ㄴ’ 형 형용사, ‘-ㄷ’ 형 형용사, ‘-는’ 형 형용사로 부른다.

주로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도 결합하는 부사형 어미에 따라 ‘-게’ 형 형용사, ‘-고’ 형 형용사, ‘-아/어/여’ 형 형용사, ‘-아/어/여야’ 형 형용사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 ‘-ㄴ’과 부사형 어미 ‘-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형용사와 ‘-ㄷ, -게’ 형 외에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부류 및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6> 활용형이 제한적인 제약 형용사의 부류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	‘-ㄴ’ 형 형용사	가경하다, 가공하다03, 가괴하다, 가교하다01, 기하다02, 가분하다04
	‘-ㄷ’ 형 형용사	강근하다, 관하다04, 깎아지르다, 무단하다, 비근하다, 심심하다03, 여하하다, 주요하다, 진정하다01, 철면피하다, 특정하다, 허구하다01, 영광되다, 사스럽다, 수많다, 열피다, 생때같다, 기나길다, 머나멀다, 꽃답다, 막다르다, 배다르다, 입바르다, 피어리다, 볼먹다, 볼메다, 빛바래다, 자랑차다
	‘-는’ 형 형용사	간단없다, 손색없다, 수없다, 한없다, 갈데없다, 난데없다, 더없다, 끊임없다, 아낌없다,
주로 부사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	‘-게’ 형 형용사	덩그렇다, 동그맣다, 참따랄다, 참땅다, 번질나다, 뻥질나다, 뻥찢나다, 주살나다, 심심찮다, 울목갓다, 때맞다, 늘씬하다
	‘-고’ 형 형용사	무작정하다, 무정처하다, 무조건하다
	‘-아/어/여’ 형 형용사	마지못하다, 머지않다, 미구하다01
	‘-아/어/여야’ 형 형용사	극상하다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때아니다, 마침맞다, 막되다, 버젓하다, 참답다.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다직하다, 오죽하다, 여복하다

다음은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의 목록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 표현과 관련된 문법 정보를 가진 형용사는 총 12개로,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7>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의 목록

표제어	문법 정보
남-부럽다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당-하다 ¹ (當--)	흔히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
대수-롭다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
마뜩-하다	주로 '않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맞-갓다	주로 '맞갓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별-다르다(別--)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시답다(實▽--)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석연하다(釋然--)	흔히, 뒤에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여간-하다(如干--)	'아니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 앞에 쓰여
좁-하다	뒤에 '않다', '못하다', '없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칠칠-맞다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여
탐탁-하다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또한,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정 축약형⁵⁾ '남부럽잖다, 당찮다, 마뜩잖다, 맞갓잖다, 시답잖다'가 별도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부정 축약형이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부정 표현과 주로 공기하는 형용사로 보이는 예들은 문법 정보가 없더라도 제약 형용사의 목록에 추가하였다.⁶⁾ 해당 형용사는 4

5) 김선영(2005)에서는 본고의 '부정 축약형'을 "X잖/잖-" 형용사'로 불렀다. 물론 이 형용사들의 일부는 《표준국어대사전》 중에 이미 어휘화되어 지금 그들의 '긍정형'이 이미 사라져서 '부정 축약형'으로 불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부정 축약형은 모두 긍정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본고는 부정 축약형을 통해서 긍정형을 찾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관계를 잘 표현하기 위해 '부정 축약형'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6)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 축약형이 있지만 긍정형은 부정 표현이 선호되지 않는 형용사도 있다. 그 이유로는 주로 아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부정 축약형의 의미는 이미 긍정형의 의미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용법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귀찮다'의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이며 '귀하다'의 의미와 상관없다. 위의 형용사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 목록은 아래와 같다.

괜찮다, 귀찮다, 만만찮다, 심심찮다, 하찮다, 같찮다, 되찮다, 오죽찮다, 점찮다, 올

개가 있고 목록 및 문법 정보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는 총 16개가 있다.

<표 8> 새로이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로 간주한 형용사의 목록

표제어1	문법 정보	표제어2 (부정 축약형)
달갑다	-	달갑잖다
가당하다 (可當--)	-	가당찮다 (可當--)
변변하다	-	변변찮다
여의하다01 (如意--)	-	여의찮다 (如意--)

2.3.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의 처리 문제

지금까지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들에 형용사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김건희(2016), 김선호(2002), 김주상(2010), 남경완(2007), 배주채(2018), 양명희(1998), 유창돈(1965, 1975), 유현경(1998)]. 이 절에서

곧잖다

둘째, 부정 축약형의 의미는 긍정형의 일부 의미와 대응하고, 긍정형의 다른 용법은 부정 표현과만 공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속한 단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대단찮다, 마땅찮다, 시원찮다/선찮다, 수월찮다, 안심찮다, 짹짹찮다/짹짹찮다, 칠칠찮다, 편찮다, 편편찮다, 깔밋찮다, 적찮다, 한갓대잖다

셋째, 부정 축약형은 의미가 긍정형의 의미와 완전히 반대이지만 긍정형의 용법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속하는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괴이찮다/괴찮다, 낙낙찮다, 웬간찮다, 우연찮다, 웬간찮다, 조런찮다, 야껏찮다/야жат잖다, 의껏찮다

넷째, 부정 축약형이 있지만 긍정형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에 속하는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짹짹찮다, 개잖다, 그닥잖다, 풀같잖다, 풀답잖다, 어쭙잖다/어쭙잖다, 잠잖다

본장에서 이 형용사들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굳어진 관형사형과 제약 형용사’, ‘굳어진 부사와 제약 형용사’로 나누어서 선행 연구에서 제약 형용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3.1. 굳어진 관형사와 제약 형용사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의 관형사형의 일부는 몇몇 연구에서 관형사로 간주된 바 있다. 다음 <표 9>는 관형사형을 굳어진 관형사로 간주하는 연구들과 그 목록이다.

<표 9> 굳어진 관형사로 간주하는 활용형의 목록

연구	관형사
김선호(2002)	괜한, 때아닌
김주상(2010)	가공할, 괜한, 볼멘, 열띤
남경완(2007)	배다른, 괜한
배주채(2018)	강근한, 기나긴, 막다른, 머나먼, 볼먹은, 볼멘, 비근한, 빛바랜, 생때같은, 여하한, 영광된, 피어린, 자랑찬, 진정한, 철면피한, 특정한, 허구한, 가경할, 가공할, 가괴할, 가교할

그러나 이들은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형사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이는 관형사라는 품사 범주를 따로 설정해야 되는 문제⁷⁾와 관련도 있지만 본고는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관형사를 품사로 인정한다.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관형사로 간주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그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활용형이 실제로 하나만 남아 있으면 굳어진 관형사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7) 목정수(2002), 이정택(2003)은 관형사라는 품사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다른 품사와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목정수(2002: 95)는 ‘온갖’과 같은 기존의 관형사와 ‘국제’와 같은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들을 형용사의 범주에 놓았다. 목정수(2002)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품사로 설정한다. 따라서 기존의 관형사 범주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형용사’ 범주에 편입시켜 기술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한국어 형용사의 범주를 재설정하였다. 이정택(2003)은 한국어의 체언은 다른 체언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사, 대명사 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관형사들은 타 품사로 제 분류하고 관형사 범주에 남아 있는 단어들을 부사와 같이 하나의 품사 (부사 혹은 수식사)로 묶는 것을 제안하였다.

남경완(2007)은 ‘배다르’, ‘괜한’을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근거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1000만 어절 코퍼스에서 추출한 용례를 통해 ‘배다르’, ‘괜한’이 모두 하나의 형태로만 쓰인다는 것을 들었다. 배주채(2018)에서도 형용사의 활용형이 하나만 있는 경우 다른 품사로 처리해야 하며 형용사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 -히’ 파생 부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굳어진 관형사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김건희(2016), 배주채(2018)은 접미사 ‘-이’나 ‘-히’가 붙은 부사와 관련된 형용사가 활용형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관형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제약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관형사로 간주한다면 파생 부사가 어디서 왔는지를 조어법의 측면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어야 굳어진 관형사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김선호(2002: 54)는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수 없고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휘화한 관형사의 설정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기준은 아래 (11)과 같다. 이를 통해 ‘괜한’, ‘때아닌’을 관형사로 간주하였다.

(11) 어휘화한 관형사의 설정 기준:

가. 형태론적 기준

어휘화한 관형사는 굴절요소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수 없고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의미론적 기준

관형사형 어미 ‘-은/을’이 시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11나)의 ‘-은/을’이 시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유창돈(1965, 1975)도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다. 유창돈(1965: 7, 1975: 381)은 관형사 자체가 시제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사를 관형사로 전성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ㄴ, -ㄹ’의 시제성이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특정한 문형이 있으면 굳어진 관형사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유현경(1998: 268)에서 ‘배다르’은 (14)와 같이 “NP1-와 NP2-가 Adj” ↔ “NP2-가

NP1-와 Adj' ↔ 'NPpl-가 Adj (NPpl : 복수명사)'의 대칭형용사의 격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12) 가. 민이와 민수는 배다른 형제이다.

나. 민수는 민이와 배다른 형제이다.

다. 그들은 배다른 형제이다.

라. *민수는 배다른 형제이다. (유현경 1998: 268-269, 예문 (25))

배주채(2018)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주채(2018: 315)는 논항을 요구하는 문법적 특성 때문에 활용형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용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 중 '배다르다 (...과)'와 '주요하다 (...게/에게)'의 경우, 괄호 안에 표시한 성분을 논항으로 요구하므로 이들이 활용형이 하나 있어도 관형사가 아닌 제약 형용사로 보았다.

이 기준들 외에 유현경(1998: 268)에 의해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처리하면 뒤에 오는 명사도 특별한 의미의 충돌이 없는 한 아무 명사나 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막다르다'를 제시하였다.

(13) 가. 막다른 골목/집/길...

나. 막다른 *신작로/*건물/*자갈길...

(13)을 보면 '막다르다'는 '골목, 집, 길' 등 몇 개의 한정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막다른'이 관형사라면 '신작로, 건물, 자갈길'과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진 명사들과 두루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명사와 주술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루'라는 말의 범위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연구자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막다르다'는 말뭉치에서 서술어로 쓰인 예가 없으며, 따라서 피수식 명사와 주술 관계를 이루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논의들을 보면, 제약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활용형이 하나만 남아 있는지, ‘-이, -히’ 파생 부사가 존재하는지,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 논항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활용형이 불완전한 형용사에 대해 이러한 특징들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다. 우선 활용형 및 선어말어미는 국립국어원 현대 원시 말뭉치를 이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히’ 파생 부사와 논항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한다. 논항을 요구하는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 정보를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형이 있는 제약 활용형은 관형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14) 배-다르다

「형용사」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주로 ‘배다르’ 꼴로 쓰여))

형제자매의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르다.

2.3.2. 굳어진 부사와 제약 형용사

주로 부사형으로 쓰인 제약 형용사의 부사형 중에서는 부사로 간주하는 연구가 있다[배주채(2018), 양명희(1998), 유현경(1998)].

배주채(2018)은 ‘미구하다, 무정처하다, 늘씬하다, 덩그렇다, 동그맣다, 때맞다, 번질나다, 뻥질나다, 울목갓다, 주살나다, 참따랗다, 참땡다, 극상하다’를 하나의 부사형만 가능하다고 판정하여 형용사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부사형 ‘미구하여, 무정처하고, 늘씬하게, 덩그렇게, 동그맣게, 때맞게, 번질나게, 뻥질나게, 울목갓게, 주살나게, 참따랗게, 참땡게, 극상해야’를 부사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게’형 부사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것은 ‘겁나게’, ‘되게’ 두 가지뿐이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참따랗게’, ‘참땡게’를 부사로 등재하였다.

양명희(1998: 190, 196)은 ‘번질나게, 뻥질나게, 늘씬하게, 참따랗게, 다직하면, 다직해야, 다직해서’가 용언의 활용형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부사로 간주하지 않

았다. 대신에 제한된 활용형의 쓰임을 뜻풀이 앞에 문법적 조건을 덧붙여 뜻풀이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약 형용사의 부사형을 굳어진 부사로 간주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통합 교열 지침》(1997)과 유현경(1998)에서 언급된 바 있다. 유현경(1998: 291)은 부사가 문장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굳은 부사형은 대개 (15)의 ‘무섭게’와 같이 이동 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한 부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굳은 부사형 중에서 (16)의 ‘새까맣게’와 같이 이동이 자유로운 것들도 있지만 굳은 부사형이 인접한 성분들과 밀접하게 의미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15) 사흘을 굶은 그는 밥상을 앞에 대하자 무섭게 먹어댔다.

→ *사흘을 굶은 그는 무섭게 밥상을 앞에 대하자 먹어댔다.

[유현경(1998: 290) 재인용]

(16) 으레 또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새까맣게 모여든다.

→ 으레 또 주위에는 새까맣게 구경꾼들이 모여든다.

→ 으레 또 새까맣게 주위에 구경꾼들이 모여든다.

[유현경(1998: 291) 재인용]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제약 형용사의 굳은 부사형은 유현경(1998)에서 다룬 ‘굳은 부사형’과 그 대상이 다르다. 유현경(1998: 269)의 ‘굳은 부사형’은 어휘 전체의 활용형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의미항목에서 부분적인 활용형에 제약을 보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형용사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또한, 모든 부사가 문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본고에서 다루는 제약 형용사들의 부사형은 의미 전이가 대개 없는 것들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기준은 본고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어미가 붙는 부사의 표제어로 올린 조건에 대해 국립국어

연구원의 《통합 교열 지침》(1997: 30)에서는 아래 (17)과 같이 제시하였다.

- (17) 가. 조사나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단위가 아니다.
- 나. 활용에 제약이 있다.
- 다.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

그러나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들은 한정적인 어미와만 결합하므로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단위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는 것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17)에 제시한 기준 중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약 형용사의 부사형을 판정하는 데와 관련된 것은 결국 활용형 제약이 있다는 것 하나만이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2000: 46)에서도 이런 조건을 삭제하고 단지 ‘용언의 활용형이던 것이 굳어져 한 단어가 된 경우 표제어로 인정한다.’라는 기술만 남았다. 그러나 ‘굳어져 한 단어가 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활용형이 하나로 제약된다는 점 외에는 이들을 부사로 굳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들의 활용 양상을 국립국어원 현대문어 원시 말뭉치를 기반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해당 부사형으로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전의 문법 정보의 기술과 같이 해당 부사형으로만 쓰이는 제약 형용사의 부사형을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

본 장에서는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말뭉치에서 이 형용사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을 실제로 제약 형용사로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전의 기술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약 어미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형용사를 '(완전) 제약 형용사'로 간주하고, 제약 어미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할 수 있지만 그 빈도가 아주 낮은 형용사를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한편, 제약 어미 외에 다른 어미와 많이 결합할 수 있고 심지어 제약 어미보다 빈도가 더 높은 형용사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본다. 다음으로, 2.3.1.에서 검토한 기준을 사용하여, 제약 형용사의 활용형을 관형사 혹은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3.1.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먼저,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를 '-ㄴ' 형 형용사, '-ㄷ' 형 형용사, '-는' 형 형용사의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말뭉치를 통해 각 부류의 형용사를 '제약 형용사', '제약 경향 형용사', '제약이 없는 형용사' 중 어떤 부류로 판단해야 할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2.3.1.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들이 관형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기준으로는 '-이, -히' 파생 부사가 존재하는지,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 특정 문형이 있는지 3가지를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선어말어미 결합여부는 이미 제약 형용사 판정 과정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히' 파생 부사가 존재하지 않고, 특정 문형이 없는 제약 형용사의 관형사형만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파생 부사의 존재 여부와 문형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을 참고한다.

3.1.1. ‘-ㄹ’ 형 형용사

사전에서 주로 ‘-ㄹ’ 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ㄹ’ 과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ㄹ’ 형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빈도

표제어	연결 요소 (빈도)
가경하다(可驚--)	-ㄹ(2)
가공하다03(可恐--)	-ㄹ(132), -ㄹ 만하-(29), -ㄴ 만하-(1)
가괴하다(可怪--)	
가교하다01(可教--)	
가기하다02(可期--)	
가분하다04(可憤--)	

‘-ㄹ’ 형 형용사 중에 ‘가경하다, 가공하다, 가분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예문이 있지만 ‘가괴하다, 가교하다, 가기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예문이 없다. 그리고 ‘가공하다03’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문법 정보의 서술과 같이 주로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한다. ‘가괴하다, 가교하다, 가기하다, 가분하다’는 말뭉치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가경하다, 가공하다’만 관찰된다. ‘가공하다’는 ‘-ㄴ’과 결합하는 예문은 하나만 발견되지만¹⁾ 오용이라고 생각된다.

- (1) 첫째 원인은 범행자들이 가공한 만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공할’은 (2)와 같이 ‘가공할 만하다’²⁾의 형태로 쓰일 수 있고 말뭉치

1) 이 예문에서의 ‘가공하다’는 ‘가히 공(恐)하다’로 해석돼서 ‘가공하다03(可恐--)’를 동사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고는 사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 ‘가공하다’를 형용사로 인정한다.
 2) 보조 형용사 ‘만하다’는 보통 동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가공하다’와 결합하는 경우 ‘가공하다’를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고는 사전에 있는 문법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에서 29개의 예문이 발견된다. ‘가공하다’의 경우 ‘가공할’로만 쓰이므로 제약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2) 가. 원자탄 폭발시의 가공할 만한 에너지는 질량이 에너지로 직접 변환되기 때
문이라고 말해져 왔다.

나. 1964년부터 북동부지역을 대상으로 본격화된 미군의 폭격은 가공할 만했
다.

‘가공할 만하-’에 대해 배주채(2018: 302)에서 ‘가공하다’는 ‘두려워할 만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단어 속에 ‘만하다’의 의미(즉 ‘可’의 의미)가 이미 들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공할 만하다’는 ‘두려워할 만할 만하다’의 뜻을 갖게 되어 이상한 표현이라고 하며 (2)처럼 사용하는 ‘가공할 만하다’는 ‘가공하다’의 오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용보다는 의미 중복 혹은 잉여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임지룡(1985: 37)에 의하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은 떼어내어도 본질적인 의미전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정보라 하고 보충정보를 지닌 표현에는 의미 중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석혜매(2018)은 ‘잉여표현’에 대해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적으로 두 번 이상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잉여표현이 많다. 예를 들면 ‘미리 예습하다’의 ‘미리’와 ‘예습하다’의 ‘예(預)’는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공할 만하다’는 화자들이 ‘可恐-’에서 ‘可’의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ㄴ 만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미 중복을 화자의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면 굳이 오용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가공할’과 ‘가공할 만한’ 뒤의 피수식 명사의 종류와 그 빈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공하다’를 형용사로 인정한다.

<표 2> ‘가공할’ 및 ‘가공할 만한’이 수식하는 명사의 양상

	명사 및 빈도
가공할	위력(8), 때(8), 수(7), 파괴력(6), 일(6), 공격력(5), 무기(4), 위험(4), 득점력(3), 위협(2), 힘(2), 공격(2), 필요(2), 정도(2), 모습(2), 핵무기(2), 과학(1), 권력(1), 4시간 동안(1), 여가 시간(1), 식성(1), 현상(1), 파국(1), 파괴(1), ‘짤막 뉴스’(1), 만큼(1), 환경 파괴(1), 무지(1), 하중(1), 핵(1), 권력과 돈(1), 티자와 페타이어(1), 폭력(1), 득점포(1), 민족의 재앙(1), 예정(1), 환경 파괴(1), 죄악(1), 살인과 투옥(1), 기계인간(1), 승률(1), 위압감(1), 타선(1), 탄력(1), 무기의 위력(1), 유대인 학살(1), 화력(1), 서해안 전력(1), 스피드(1), 집중력과 단결력(1), 체력(1), 수준(1), 번식력(1), 생존능력(1), 파장(1), 공포(1), 앙상블(1), 참상(1), 생명동업 파괴위기와 식량위기(1), 시나리오(1), 위험성(1), 규모(1), 압력(1), ‘생명, 인간파괴’의 수단(1), 재난(1), 기업식민주의(1), 보고(1), 공룡붐(1), 핵(1), 납치(1), 부분(1), 위험성(1), 무력경쟁(1), 지배(1), 것(1), 효과(1), 공작물(1), 인물(1), 핵테러내지(1), 골밑돌파(1), 구도변화(1), 유대인 박해(1), 해독(1), 수령(1), 여파(1), 망국의 정신암(1), 상황(1), 의미(1)
가공할 만한	힘(3), 것(3), 에너지(2), 영향력(1), 매력(1), 파괴력(1), 공허감(1), 핵무기(1), 정력(1), 돌파력과 슈팅력(1), 첨단 컴퓨터 시스템(1), 어둠의 세계(1), 신드롬(1), 무기와 화력(1), 사고 양태(1), ‘화’(1), 위력(1), 번식력(1), 사고의 확장(1), 생태계파괴(1), 소외의 철학(1), 변질(1), 인플레이의 심화(1), 공포와 위협(1), 존재(1), 무술(1), 정보가공력(1), 공격(1), ‘고공폭격’(1), 생의학 시대(1), 파괴력(1), 황장엽 리스트(1), 영향(1), 파괴력(1)

‘가공할’ 및 ‘가공할 만한’은 힘과 관련된 명사를 수식하는 빈도가 높고 두 활용형이 결합하는 명사에는 큰 차이가 없이 서로 거의 다 대치할 수 있다. 그리고 말뭉치의 출처 정보에 따르면, 모두 주로 신문에서 사용된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르’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르’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르’ 형 제약 형용사	가경하다(可驚--), 가공하다(可恐--), 가괴하다(可怪--), 가교하다01(可教--), 가기하다02(可期--), 가분하다04(可憤--)
---------------	--

다음은 ‘-르’ 형 제약 형용사를 관형사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가괴하다, 가교하다, 가기하다, 가분하다’는 말뭉치에서 예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가경하다’와 ‘가공하다’는 사전에서 ‘-이, -히’ 파생 부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이 사전에서 모두 문형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가경할’, ‘가공할’을 관형사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가공하다’는 말뭉치에서 ‘가공할 만하다’로도 쓰이므로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가공할’은 ‘폭격이 가공하다’처럼 주절 술어로 쓰인 예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공할 만하다’는 ‘폭격이 가공할 만하다’처럼 주절 술어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가공할 폭격’의 ‘가공할’은 관형사로 볼 수 있지만 ‘가공할 만한 폭격’의 ‘가공할’은 ‘만하다’가 보조용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형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가공할 만한 폭격’의 ‘가공할’과 ‘가공할 폭격’의 ‘가공할’은 같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공할’을 관형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외에 ‘가경할’을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르’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4> ‘-르’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이, -히’ 파생 부사	문형 정보	관형사로 간주 가능성
가경하다	X	X	가경할
가공하다	X	X	X
가괴하다	X	X	
가교하다01	X	X	
가기하다02	X	X	
가분하다04	X	X	

‘-이, 히’ 파생 부사 및 문형의 관한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로 표시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 ‘×’로 표시한다. 빈칸은 말뭉치에서 예문이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관형사 혹은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활용형들이다.

3.1.2. ‘-ㄴ’ 형 형용사

사전에서 주로 ‘-ㄴ’ 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ㄴ’ 과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ㄴ’ 형 형용사 판정 대상의 활용 양상

표제어	연결 요소(빈도)
강근하다(強近--)	-ㄴ(1)
괜하다04	-ㄴ(216)
기나길다	-ㄴ(202)
무단하다(無斷--)	-ㄴ(1)
배다르다	-ㄴ(33)
볼메다	-ㄴ(140)
생때갈다	-ㄴ(9)
심심하다03(甚深--)	-ㄴ(31)
자랑차다	-ㄴ(1)
피어리다	-ㄴ(18)
허구하다01(許久--)	-ㄴ(118)
머나말다	-ㄴ(155), -던(1)
수많다(數--)	-ㄴ(3697), -다(1)
진정하다(眞正--)	-ㄴ(81), -ㄴ(3)
입바르다	-ㄴ(23), -게(2), -고(1)
깎아지르다	-ㄴ(70), -는(1), -었다(1)
비근하다(卑近--)	-ㄴ(58), -게(3), -고(1), -ㄴ(1)
여하하다(如何--)	-ㄴ(74), -였던(1), -온지(1), -였든(1)
막다르다	-ㄴ(221), -ㄴ(2), -ㄴ(1), -게(1), -고(1)
열띠다(熱--)	-ㄴ(239), -게(4), -ㄴ(1), -다(1), -고도(1)
철면피하다(鐵面皮--)	-ㄴ(5), -고(2), -어지고(2), -게(1), -ㄴ(1)
사사롭다(私私--)	-ㄴ(210), -ㄴ(13), -게(7), -고(2), -지 않-(1), -ㄴ(1),
영광되다(榮光--)	-ㄴ(24), -ㄴ(2), -고(2), -게(1), -다(1), -심에(1)
주요하다(主要--)	-ㄴ(177), -게(는)(15), -고(2), -다(1), -다는(1)
빛바래다	-ㄴ(82), -어(2), -어서(2), -고(1), -어져(1), -어져서(1), -게(1)
꽃답다	-ㄴ(102), -게(6), -고(2), -ㄴ(2), -다(1), -어라(1), -어지는(1), -려 면(1), -랴(1), -였던(1), -다는(단)(1)
특정하다(特定--)	-ㄴ(1228), -게(4), -지(는) 않-(4), -어(4), -기(위해서/어려워)(3), - 여(2), -어서(2), -지만(1), -고(1), -면(1)
볼먹다	

‘-ㄴ’ 형 형용사 중 ‘강근하다’, ‘괜하다04’, ‘기나길다’, ‘무단하다’, ‘배다르다’, ‘불메다’, ‘심심하다03’, ‘자랑차다’, ‘피어리다’, ‘허구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ㄴ’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말뭉치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 형용사로 판정한다.

다음은 나머지 형용사를 살펴본다. 그들은 말뭉치에 모두 ‘-ㄴ’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존재한다. 우선, ‘머나멀다, 수 많다, 진정하다, 입바르다, 깎아지르다’를 검토한다. ‘머나멀다’는 ‘-던’과 결합한 예문이 하나가 있고, ‘수 많다’는 ‘-다’와 결합하여 주절 서술어로 쓰인 예문이 하나가 있다. ‘진정하다’는 ‘-ㅁ’과 결합한 예문이 3개 있고, ‘입바르다’는 ‘-게, -고’와 결합한 예문이 하나씩 있다. ‘깎아지르다’는 ‘-는’과 결합한 예문이 하나 있고, ‘-었다’와 결합한 예문이 하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ㄴ’과 결합한 예문 수가 압도적이어서 제약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 (3) 가. 서울 올림픽 이전에 그 머나멀던 소련과 중국이 개울 앞에 다가와 있을 줄 누가 예상했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며칠 전에 동구를 비롯한 공산 정권들의 도미노 현상을 누가 예상했던가.
- 나. 골든 위크에는 한국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수 많다.
- 다. 시인은 황홀감을 느낀다. 이 황홀감은 다른 존재에 대한 경이, 대상과의 진정함 교감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 라. 이번 사건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진료 청구비 내용을 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제공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적성검사 대상자로 취급된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진정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 마. 나의 세대에 혹은 나 자신에게 부족한 역사성과 총체성의 힘과, 80년대 세대가 외면하려드는 초월성과 단독자성의 진정함이 어울려야 한다는 나의 희망은 그래서 솟아난 것이고 그 희망을 앞으로의 역사를 짊어질 세대들에게 짐 지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 바. 촛로는 앞드려 죄를 기다리는데, 정조계선 촛로에게 거짓 이름을 댄 사유를 또 다시 묻자, 촛로는 "죽을 때가 되느라고 그랬사옵니다. 상감마마께 감히

거짓 아뢰고자 한 것이 아니옵고, 이 고개는 원래 여우고개이오나, 상감께서 물으심에 그런 쌍스러운 이름을 입바르게 알려올림이 황송하옵기로, 생각나는 대로 알렸사옵니다."라고 답하였다.

사. 지금 우리 문학은 입바르게 문학의 황금기라고 말할 만한 허세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옳지만 일정한 문학사적 성숙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전 생략)...이고, 총검 찬 계엄군이 골목을 휩쓸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멧대로 잡아다가 삼청교육대로 호송하고, 입바르고 행동 바른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방을 둘러봐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절벽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스레 유인물 살포니 뭐니 하는 말을 듣자 웃음부터 빼죽 나왔던 것이다.

자. 너무 기뻐어요. 지렁이처럼 기어 다니다가 걸거나 달리는 것을 생략하고 갑자기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됐으니깐요. 하지만 세상이라고는 깎아지르는 절벽과 끝없는 바다뿐이었어요.

사. 손바닥 위에 따 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며 싱글벙글한다. 우중충한 구석으로 바위는 벽같이 깎아질렀다.

다음은 ‘비근하다’를 살펴본다. ‘비근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58개가 있다. ‘비근하다’는 ‘-ㄴ’ 외에 ‘-게’와 결합한 예문 3개, ‘-고’와 결합한 예문 1개, ‘ㄹ’과 결합한 예문 1개가 있다.

(4) 가. 사랑이란 무형한 정신 활동은, 극히 비근하게 비유하자면, 저 미나리 강의 미나리와 같다. 미나리는 사람이 베어다 먹으면 그 밀뿌리에서 자꾸 새 것이 돌아난다.

나. 낭만성이라는 용어로 가장 비근하게 환치될 수 있는 것이 ‘환상성’이 아닌가 한다.

다. 비근하게, 방글라데시의 소비자들은 DDT를 포함한 여러 살충제로 미리 훈증한 제품 대신 방사선 조사된 건조 생선류를 선호한다.

라. 이러한 비근하고 미묘하며 곤란한 문제는 고사하고, 다만 성 문제에 러셀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마. 인간은 통일적인 것이 아니라 모순된 것입니다. 하나 비근할 예를 들지요.

‘여하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이 74개 있다. ‘여하하다’는 ‘-ㄴ’ 외에 ‘-었던’과 결합한 예문 1개, ‘-은지’와 결합한 예문 1개, ‘-였든’과 결합한 예문 1개가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5) 가. 저도 신변의 사정이 여하하였던 지나간 해에는 稿料를 위한 글을 적잖게 썼 습니다.

나. 옥고에 존재 보존은 여하하온지 문안드리오.

다. 더군다나, 한복은 살인죄인의 아들로서 동네 머슴으로 자랐고 그 정신적 고 녀가 여하하였든 병수는 거대한 기와집, 최참판택 깊은 곳에서 살았다.

‘막다르다’의 경우,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221개가 있다. ‘-ㄴ’ 외에 명 사형 전성어미 ‘-ㄹ’과 결합한 예문은 2개, ‘-ㄹ’과 결합한 예문은 1개, ‘-게’와 결 합한 예문은 1개, ‘-고’와 결합한 예문은 1개가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6) 가. 육백년 전의 이 심진동 막다를 너머 隱身寺에 살았던 중 無學을 찾아서 당 대의 권세인 이성계가 이웃 靈覺寺에서 오다가 쉬던 바위 君王岩이 있다 하 고 ...(후 생략)

나. 그 골목들에서 느껴지던 막다를과 가난함, 그것이 내 문학의 자리라고 여겨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 이 소설은 각기 다른 어린 시절, 성장 배경, 가치관을 지닌 세 여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막다를 문제들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고...(후 생략)

라. 국제 사회의 제제가 취해지기 시작하면 북한은 IAEA 탈퇴, 유엔 탈퇴 등의 조치로 막다르게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 결국은 막다르고 후미진 좁은 고살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수줍게 서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열띠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239개가 있다. ‘-ㄴ’ 외에 ‘-게’와 결합한 예문은 4개, ‘-ㄹ’과 결합한 예문은 1개, ‘-고도’와 결합한 예문은 1개가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 (7) 가. 그 독기가 국민을 미치게 하고, 열띠게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끝내는 그 언어의 고혈압증으로 자기 파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 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원자율화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개념규정에서부터 정부의 조치가 과연 자율화를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와 자율화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할 일과 학교당국이 할 일, 학생이 할 일 등이 열띠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건의사항과 결의사항, 성명서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다. 최형은 머리가 좋고 특히 어학에 능통하여서 교리책을 열띠게 연구하였고, 중국 책 번역도 많이 하는 한편, 손재주가 뛰어나서 곧잘 목주도 만들었고 목수 일도 잘해냈다.
- 라. 제 식구들을 먼저 입교시키려고 단단히 버른 유진길은 차근차근 사람이 태어난 목적과 참 사는 기쁨과 나아갈 바 참다란 사람의 길을 풀이해 가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는 입교하기를 열띠게 권하였다.
- 마. 응원이 열떨 수밖에 없다.
- 바. 놀랄 만큼 엄숙하고, 진지하고 열띠다, 아니 격렬하다.
- 사. 산더미 같았던 줄목 위에서 큰 깃발을 흔들어 남북군을 아울러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열띠고도 위엄스러웠다.

‘비근하다, 여하하다, 막다르다, 열띠다’는 모두 ‘-ㄴ’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있지만 빈도가 아주 낮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철면피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5개가 있다. ‘-ㄴ’ 외에 ‘-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 ‘-어지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 ‘-게’와 결합한 예문은 1개,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 ‘-ㅁ’과 결합한 예문은 1개가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 (8) 가. 태규는 여전히 구제불능으로 철면피하고 뻔뻔하고 전혀 아무 자책도 느끼지

않았다.

- 나. 그러나 나의 판단은 성급한 것이었다. 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앞의 어느 경우보다도 철면피하고 요사스럽고 수상쩍은 그런 게임이
- 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철면피해지고 있다.
- 라. 차차 그 당사자도 당사자대로 사생결단이나 내듯이 더 철면피해지고, 악착스러워 갔다.
- 마. 그들은 그 문장은 10대 소녀가 감히 쓸 수 없는 문장이라느니, 가필된 흔적이 있다느니 하는 주장을 철면피하게 하고 있었다.
- 바. 몇 백만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광인의 철면피함을 조소했다.

‘철면피하다’가 ‘-ㄴ’과 결합한 예문은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보다 수량적으로 압도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철면피하다’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사사롭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210개가 있다. ‘-ㄴ’ 외에 명사형 전성어미 ‘-ㅁ’과 결합한 예문은 13개, ‘-게’와 결합한 예문은 7개, ‘-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 ‘-지 않-’과 결합한 예문은 1개, ‘-ㄴ’과 결합한 예문은 1개가 있다.

- (9) 가. 그러나 욕망과 사사로움이 엉켜 너절한 이 사회에서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쉬울 리 없다.
- 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때로 사사롭게 느껴지는 질문도 하고 늘 비슷비슷한 그들의 주변 얘기에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
- 다. 동창과 동료, 과거와 현재, 같은 공간에 존재했다는 형식적인 이유 말고도 그들은 사사롭게 변할 수 있는 관계였다.
- 라. 전자가 사사롭고 개인적인 제재를 다룬 것이라면 후자는 보다 심각한 공식적인 것을 다룬다.
- 마. 오직 맑고 지혜로우며 공변되어 사사롭지 않은 자. 이런 자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 바. 무릇 문장은 천하 누구나 쓸 수 있는 빈 그릇이니 어찌 감히 사사로움 수가 있을까?

‘영광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24개가 있다. 그리고 ‘-ㄴ’과 결합한 예문은 2개, ‘-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 ‘-게’와 결합한 예문은 1개, ‘-다’와 결합한 예문은 1개, ‘-심에’와 결합한 예문은 1개가 있다.

- (10) 가. 종(種)이 고정된 것이 무엇이 신에게 더 영광될 것이 있으며, 변천한다는 것이 무엇이 신의 능력을 감소하는 것이 될까?
- 나. 일본이 통상한 이후로 각국의 정의를 얻는 것이 가장 긴중한 줄을 깨달은 고로, 통상외교에 전력하여 관인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자기 나라에 영광될 일은 기어이 세상에 드러내며, 자기 나라에 수치될 일은 기어이 가려 두기를 힘써서 상하관민이 이 일에 일심이 된지라.
- 다. 인생은 잠간이야 하면서 굶은 밤부터 골라 먹듯이 영광되고 화려한 것만을 골라 누리려는 삶은 확실히 즐거울 것입니다.
- 라. 내가 부모로부터 생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생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그 어린 생명을 양육하며,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가문에 영광되고, 국가에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마. 그리고 후에 그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은 勞動하고 굶주리고 봉사하는 데 만족하고, 주인을 살찌게 하고 영광되게 하려고 고심하는 멍청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 바. 장부가 태어나서 聖明한 세상을 만나 聖神한 임금을 섬기면서 信任의 무거움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영광되다.
- 사. 남은 겨레와 이 鄉土의 榮光되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요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177개가 있다. 이 외에 ‘-게(는)’과 결합한 예문은 15개가 있고 빈도가 낮지 않다. 그리고 ‘-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가 있고, ‘-다’, ‘-다는’과 결합한 예문은 각 1개가 있다.

- (11) 가. 소칼은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의 주요한 말들을 짜깁기한 "역지와 퀘변으로 가득찬" 논문을 미국 문화연구지인 (소셜 텍스트)에 보냈고, 이 잡지는 이를

특집호로 주요하게 다뤘다.

- 나. 일차 정보 부문에서는 정보지식의 생산·판매가 이루어지고, 이차 정보부문에 서는 정보와 지식의 관리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 다. 이를 위한 기록 자료로 이병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요하게 거론되어 왔다.
- 라. 천하각국 주요하고 고금사적 통달하여 학문지식 넓힌 후에 나라 도와 사업 하여 만년무궁 터를 닦아 영원토록 세워놓고 빛난 공업 빛난 이름 지구상에 드러내세.
- 마. 이러한 차이점은 오늘날까지 두 가지의 주요하고 서로 다른 미적 충동을 시사해 준다.
- 사. 2) 철분, 피의 성분으로 주요하다.
- 아. 또 분양 성공의 열쇠로 분양가 인하와 서비스 품목 확대 등이 주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이를 응용할 경우 수요자를 충분히 끌어들이 수 있다는 계산 때 문입니다.

‘빛바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82개가 있다. ‘-ㄴ’ 외에 ‘-어, -어서’와 결합한 예문은 각 2개가 있고, ‘-고, -어져, -어져서, -게’와 결합한 예문은 각 1개가 있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12) 가. 재·보선 공천 ‘개혁’ 빛바래

- 나. 박경완 19호 단독선두로...팀은 롯데에 패해 빛바래
- 다. 유년시절도, 전원시인의 젊은 꿈도 빼앗아간 저 황폐한 도시의 변두리가 된 이 땅에서 나는 지금 단순한 기능(농사일)과 가난에 부대끼고 빛바래서 초라한 농부로 시들어간다.
- 라. 진한 고독이 빛바래서 허무가 가슴을 후비고 후비지.
- 마. 그러나 지상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의 날개는 빛바래고 휘청거리기 까지 한다.
- 바. 1982년 7월 개관, 20년 가까이 되다보니 건물들은 낡았고 페인트칠마저 빛바래져 있었다.
- 사. 꽃이 한창일 무렵에 빛깔마다의 넝쿨에다 맺어 피던 연분홍 댕기쪽도 어느

덧 빛바래져서 이제 더 꽃필 여망이란 거의 어려울 성하다.

아. 시간이란 모든 대상을 빛바래게 하는 대신 적절한 거리를 베풀어줌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한다.

‘꽃답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102개가 있다. 이 외에 ‘-게’와 결합한 예문은 6개가 있고 ‘-고’, 전성어미 ‘-ㄴ’과 결합한 예문은 각 2개가 있다. 그리고 ‘-다, -어라, -어지는, -라면, -랴, -었던, -다는(단)’과 결합한 예문은 각 1개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예문 중에 ‘꽃답다’가 ‘-고’와 결합한 예문도 하나가 있다. 아래 예문 중에 (13사)의 ‘꽃다우려면’이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정남(2005: 75)에 따르면 형용사는 목적성 연결어미 ‘-으려고’와 결합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꽃다우려면’ 사실은 ‘꽃다워지려면’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가. 꽃이 얼굴처럼 너무 크고 넓적하여 꽃답게 예쁜 매력은 없지만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과는 잘 조화된다.

나.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다. 난초는 꽃답고 계수(桂樹)는 향기로운데 물과 하늘이 한 빛이라 천지가 맑고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뱃속까지 청정(淸淨)히 하는 가을만 하라.

라. (전 생략)...16세기 서구의 천지에 인류사적인 르네상스의 백화요란을 이룩했던 것 또한 사람 목숨의 가장 꽃답고 영원한 자유, 평화, 개성, 꿈...의 존엄함을 깨닫고 노래할 수 있었음에서였다.

마. 강물 외로운 바위가 만고에 꽃다워라.

바. 썩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금방 썩는 냄새를 풍기며 꽃다운 가운데 있으면 또한 금방 꽃다워지는 것은 좋으나 그만치 믿음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 한 편의 빛나는 문장이 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각 장(章)에 결합이 없어야 하고, 장이 맑고 아름다우려면 그 구성요소인 각 구(句)에 티가 없어야 하며 구가 맑고 꽃다우려면 그 구성요소인 각 자(字)가 부실(不實)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나 은행나무는 역시 잎이다. 특히 가을철의 노랗게 물든 잎새—무슨 꽃

이 이에서 더욱 꽃다우라.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모습이 너무 좋았어 지금처럼 사진 보면은 아 저
렇게 내가 꽃다웠던 시절이 있구나.

차. 꽃답단 말이 있는데 꽃도 가지각색으로 느껴집니다.

‘사스럽다, 영광되다, 주요하다, 빛바래다, 꽃답다’는 ‘-ㄴ’ 외에 다양한 어미와 결
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어미와 결합한 빈도도 낮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
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특정하다’는 말뭉치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1228개가 있고 빈도가 압도적이다.
이 외에 ‘-게, -지 않-, -어’와 결합한 예문은 각 4개가 있고, ‘-기’와 결합한 예
문은 3개가 있다. ‘-여, -어서’와 결합한 예문은 각 2개가 있고, ‘-지만, -고, -면’
과 결합한 예문은 각 1가 있다. 우선 (14)는 ‘특정하다’는 ‘-게’와 결합한 예문들이
다.

(14) 가. 그것은 특정하게 고정된 주체에 마음을 바친 것이 아니므로. 입자인 시청자/
대중은 모든 정보를 소화시키므로.

나. 본건에서 지방법원은 스테이터스 스크린상에서 그 파라미터/커맨드의 용어를
특정하게 배치, 배열 및 디자인한 것은 인간의 광범한 창작활동의 결과이다
라고 기술하였다.

다. 한편 Loewenberg(1975:136-137)가 은유를 새로운 언어행위로서 은유적
제안(metaphorical proposal)이라고 한 데 대하여 Paprotte(1985)는 어떤 사
물들이 특정하게 보여지고 이해되도록 제안될 때에, 그 발화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자신은 물론 청자에게 제안적이고,
계시적이며, 통찰력을 줄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 청자에게 오도되고
(misleading), 왜곡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발견적 가치(heuristic value)를
강조하였다.

라. 특정하게 지정된 기부금이 아닐지라도 계약서상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는 경
우가 있다.

예문 (15)는 ‘특정하다’가 ‘-면’과 결합한 예문이다.

(15) 동사의 관습적인 결합이 특정하면 할수록 쉽게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특정하다’는 ‘-지 않-, -어, -기, -여, -어서, -지만, -고’와 결합한 예문에서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특정하다’ 앞의 목적격 조사 ‘-을/를’가 오기도 한다. 이때의 ‘특정하다’는 ‘특별히 정하여져 있다’가 아니라 ‘특별히 정하다’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런 예문은 총 27개가 있다. 여기서 일부만 제시한다.

(16) 가. 그는 정부의 파병 동의안은 파병 규모와 파병 장소를 특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이는 피배서인을 특정하지 않는 점에서 백지식배서와 같으므로 백지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다. 그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없었다. 판결에 피고인의 이름과 판사의 이름이 똑같이 나갔음은 물론이다.

라. 첫째, 권정례로 행해야 경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권정례는 왕이 정전의 어좌에 나아가지 않을 뿐 모든 의례절차는 정식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례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마. 두 사람을 특정해 닦아려는 것이 아니다.

바. 내가 특정해서 애길 하진 않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없는 회사, 주인이 없는 조직이다 보지요.

사. 물론 무조건 역사에서, 역사성에서 이탈한다는 게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적이며 근대 이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뜻에서 특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일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탈을 지시한다.

아. 이것은 북극성을 특정하여 원하는 자리를 잡는 기구이다.

자. 지금은 그냥 모호하게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국가 단체에 이익이 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해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지지 찬양하는 행위로 아주 특정하고 이거 구체화해서 바꾼다는...

따라서 형용사로 쓰인 ‘특정하다’는 ‘-게, -면’과 결합한 예문이 있다. 그리고 ‘-ㄴ’과 결합한 예문 빈도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특정하다’는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볼먹다’의 경우 말뭉치에 예문이 없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예문은 2개가 있고 모두 ‘-ㄴ’과 결합한 예문이다. 따라서 ‘볼먹다’도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 (17) 가. 이따금 학비가 좀 늦게 와 주인 노파의 볼먹은 대우를 받았다.
나. 춘광이가 열을 내며 볼먹은 소리로 대답한다.《이기영, 봄》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ㄴ’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ㄴ’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ㄴ’ 형 제약 형용사	강근하다(強近--), 괜하다04, 기나길다, 무단하다(無斷--), 배다르다, 볼메다, 생때같다, 심심하다03(甚深--), 자랑차다, 피어리다, 허구하다01(許久--), 볼먹다
‘-ㄴ’ 형 제약 경향 형용사	머나멀다, 수많다(數--), 진정하다(眞正--), 입바르다, 깎아지르다, 여하하다(如何--), 비근하다(卑近--), 막다르다, 열띠다(熱--), 특정하다(特定--)
제약이 없는 형용사	철면피하다(鐵面皮--), 사사롭다(私私--), 영광되다(榮光--), 주요하다(主要--), 빛바래다, 꽃답다,

다음은 ‘-ㄴ’ 형 제약 형용사의 관형사형들을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ㄴ’ 형 제약 형용사 중에 ‘괜하다, 무단하다’는 ‘-이, -히’ 파생 부사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생때같다’는 말뭉치에 ‘생때같이’처럼 쓰인 예문이 있다. 하지만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 정보에 의하면 ‘-ㄴ’ 형 형용사 중에 ‘배다르다’ 외에는 모두 문형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중 ‘배다르다’의 관형사형인 ‘배다르’는 관형사로 간주할 수 없고 나머지의 관형사형인 ‘강근할, 기나긴, 볼멘, 심심한, 자랑찬, 피어린, 허구한, 볼먹은’은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ㄴ’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7> ‘-ㄴ’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파생 부사	문형 정보	관형사로 간주 가능성
강근하다	X	X	강근할
괜하다 ⁰⁴	괜히	X	X
기나길다	X	X	기나긴
무단하다	무단히	X	X
배다르다	X	√	X
볼메다	X	X	볼멘
생때갈다	생때같이(*)	X	X
심심하다 ⁰³	X	X	심심한
자랑차다	X	X	자랑찬
피어리다	X	X	피어린
허구하다	X	X	허구한
머니멀다	X	X	머니먼
볼먹다	X	X	볼먹은

(‘생때같이’는 실제 쓰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로 표시한다.)

3.1.3. ‘-는’ 형 형용사

주로 ‘-는’ 꼴로 쓰이는 형용사는 모두 ‘X없다’의 형태로 쓰이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는 형용사와 결합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들이 ‘-는’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없다’의 활용 양상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이안구(2001: 356)은 ‘없다’가 ‘있다’의 활용형에 유추되어 약 18세기부터 ‘-는’과 결합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는 ‘-ㄴ’ 형 형용사와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서 주로 ‘-는’ 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는’ 형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빈도

표제어	연결 요소(빈도)
-----	-----------

간단없다(間斷--)	-는(5)
더없다	-는(38)
수없다(數--)	-는(60)
갈데없다	-는(14), -습니다(2)
난데없다	-는(138), -다(3) ³⁾
아낌없다	-는(73), -다(1)
한없다(限--)	-는(114), -고(2), -을(1)
끊임없다	-는(648), -고(2), -다는(1), -어지-(1), -지 않-(1)
손색없다(遜色--)	-는(33), -다(4), -르(2), -다는(1), -어(종결어미)(1), -어 보이다(1), -계(1)

말뭉치에서 ‘간단없다, 더없다, 수없다’는 ‘-는’ 외의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갈데없다, 난데없다, 아낌없다’는 말뭉치에서 ‘-는’ 외에도 주절 서술어로 쓰인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 형용사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는’과 결합한 예문의 빈도가 압도적이므로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 (18) 가. 파계를 따지자면, 열다섯 살 먹은 경손은 같은 열다섯 살 먹은 태식의 손자요, 태식은 경손의 할아버지 갈데없습니다.
- 나. 이만하면 어디다가 내야도 대광고 천변갓으로 술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의 동기(童妓)지, 갈데없습니다.
- 다. 앨범의 이름과 표지도 난데없다.
- 라. 이 밴드는 좀 난데없다.
- 마. 지방대학 국문과 출신으로 군소 출판사와 건축전문지를 거쳐 이곳으로 온 김명우는 그물망 같은 인맥이 작용하는 여성잡지계에서 난데없다 싶은 인물이었다.
- 바. 나를 위해선 아낌없다.

그리고 ‘난데없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는’ 외에 ‘난데없던’, ‘난데없게’로 쓰인 예문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쓰임이 말뭉치에 발견되지 않았다.

3) ‘-다 싶은’도 ‘-다’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 (19) 가. 순이가 막 집을 나서 숲가마로 가려는데, 난데없던 까치 두 마리가 순이네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정비석, 성황당》
- 나. 마당 복판의 흰 달도 어느새 옆집 오동나무 엉성한 가지 너머로 희미해지고 난데없던 검은 구름이 갑자기 쪽 퍼졌다.《최정희, 지맥》
- 다. 이 무덤 저 무덤의 것을 조금씩 나눠다가 대강만 맞게 놓으면 난데없게 새 유골이 생기기 마련이던 것이다.《이문구, 장한몽》

‘한없다’는 ‘-는’과 결합한 예문이 114개가 있다. ‘-는’ 외에 ‘-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 ‘-을’과 결합한 예문은 하나가 있다.

- (20) 가. 톰과 제리가 한없고 기상천외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 나. (전 생략)...한없고 치밀해야 할 절차가 펼쳐져 있으되, 그것을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애당초 정황 자체가 사실적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차치하고라도, 묘사해나간다는 것은, 이 상상의 틀과 걸맞지 않는다.
- 다. 한번 이루는 날은 무수히 받은 고초와 곤란의 상급이 한없을 것이오.

‘끊임없다’는 ‘-는’과 결합한 예문이 648개가 있다. 그리고 ‘-고’와 결합한 예문은 2개, ‘-다는, -어지-, -지 않-’과 결합한 예문은 각각 하나가 있다.

- (21) 가. 그들에게 옛새는 끊임없고, 피조고가 그치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 나. 부드러운 말씨가 도란도란 끊임없고, 피차의 거리가 사라져서 친숙해지고 부지불식간에 무릎이 앞으로 나아갔도다.
- 다. 그 이유는 자연물의 구조와 운동이 끊임없다는 데 있다.
- 라. 일본의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 여러 나라들이 이런 친일파의 정치적, 역사적 청산을 하지 않은 한 일본은 계속 끊임없어질 것이다.
- 마. 연극, 콘서트 등 일 년 삼백 육십오일 공연이 끊임없지 않는 문화의 거리 대학로, 건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모인 한국건축사협회는 대학로 안에서도 중심가라 할 수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 한 칸에 자리 잡고 있다.

‘한없다, 끊임없다’는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있지만 ‘-ㄴ’과 결합한 예문의 빈도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손색없다’는 ‘-는’과 결합한 예문은 33개가 있다. 그리고 ‘-다’와 결합한 예문은 4개가 있고 ‘-르’과 결합한 예문은 2개가 있다. ‘-어 보이다’, 종결 어미 ‘-어’와 결합한 예문은 각 하나가 있다.

(22) 가. 소재도 낮익고 간간이 터지는 웃음까지 있어 대중적으로 즐기기에 손색없다.

나. 이 영화에서 그녀는 임신한 16세 가출소녀 역을 농염하게 소화해내 성인배우로 손색없다는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

다. 경지는 팔등신 미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귀엽고 섹시하니까 결혼 상대로 손색없어.

라. 남칸(Nam Khan, 칸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유역에 자리 잡은 루앙파방은 왕국의 수도로 삼기에는 손색없어 보인다.

마. 분명히 장례 행렬 속에서 들리는 상여소리는 예술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승화되어 있었다.

바. 오페라 역사에서 빛나는 여섯 작품을 각각 30분씩 애니메이션으로 축약한 디브이디 타이틀 <오페라박스> 1, 2라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오페라 입문용으로 손색없을 듯하다.

사. 여하튼 선생님의 강력한 스파타식 방침 아래 뿔 빠지게 공부해서는 한 반 마흔 네 명 남녀 학생이 대개 인근에서 가장 좋다는 진주중이나 진주여중에 무난히 합격하였고, 이리하여 우리들은 영광의 진주교대부속 제일회 졸업생으로 손색없게 되었다.

‘손색없다’는 ‘-ㄴ’ 외에 다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특히 (22가)처럼 주절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 그리고 ‘-ㄴ’과 결합한 예문의 빈도는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손색없다’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는’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는’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는’ 형 제약 형용사	간단없다, 더없다, 수없다
‘-는’ 형 제약 경향 형용사	갈데없다, 난데없다, 아낌없다, 한없다, 끊임없다
제약이 없는 형용사	손색없다

다음은 ‘-는’ 형 제약 형용사의 관형사형들을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는’ 형 제약 형용사들은 모두 ‘-이, -히’ 파생 부사 ‘간단없이, 더없이, 수없이’가 존재하며 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형사형은 모두 관형사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의하면 모두 특수 문형을 가지지 않는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는’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0> ‘-는’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파생 부사	문형 정보	관형사로 간주 가능성
간단없다	간단없이	X	X
더없다	더없이	X	X
수없다	수없이	X	X

3.2. 주로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다음은 주로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를 살펴보자. 이들을 주로 ‘-게’ 형 형용사, ‘-고’ 형 형용사, ‘-아/어/여’ 형 형용사, ‘-아/어/여야’ 형 형용사,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로 나뉘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말뭉치를 통해 이들을 제약 형용사, 제약 경향 형용사,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 다음은 2.3.2에 검토한 바와 같이 제약 형용사들이 실제로 해당 활용형으로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들 형용사의 부사형을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3.2.1. ‘-게’ 형 형용사

사전에서 주로 ‘-게’ 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게’ 외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게’ 형 형용사의 활용 양상

표제어	연결 요소(빈도)
번질나다	-게(케)(1)
뻥질나다	-게(60) ⁴⁾
뻥찢나다	-게(1)
주살나다	-게(3)
늘씬하다 ⁰¹⁾	-게(14), -도록(1)
때맞다	-게(1), -지 않-(1)
덩그렇다	-게(38), -ㄴ(7), -던(2)
심심찮다	-게(215), -은(10), -을(2), -아(1),
동그말다	-ㄴ(동그만, 동그마한)(2)
올목갓다 ⁵⁾	
참따랄다	
참땡다	

‘번질나다, 번찢나다, 뻥찢나다, 주살나다’는 ‘-게’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없다. ‘올목갓다, 참따랄다, 참땡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이 전부인데, 이들 또한 ‘-게’ 외의 다른 어미와는 결합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늘씬하다⁰¹⁾’은 말뭉치에 ‘-게’와 결합한 예문이 14개가 있다. 이 외에 ‘-도록’과

- 4) ‘뻥질나다’는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 동사로 표시되어 있고 ‘주로 ‘뻥질난, 뻥질나게’의 꼴로 쓰이어’라는 문법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모두 형용사로 표시되어 있다. 본고는 말뭉치에 ‘뻥질난’의 용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라 ‘뻥질나다’를 형용사로 간주한다.
- 5) ‘올목갓다’는 말뭉치에 예문이 없지만,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아래 예문처럼 쓰이기도 한다.

가. 국을 끓일 때 양념을 올목갓게 넣어야 제 맛이 난다.(《표준국어대사전》)
 나. 반찬들이 올목갓게 담긴 까만 비닐을 들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결합한 예문이 하나가 있다. 윤평현(1988: 312)에 의하면 ‘-게’와 ‘-도록’은 모두 목적, 정도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아래 예문에서의 ‘-도록’은 ‘-게’로 바뀌도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본다.

(23) 현우는 일부러 기득의 위에 얹어져서 엉덩이가 늘씬하도록(늘씬하게) 대신 두들겨 맞았다.

‘때맞다’의 경우 말뭉치에 ‘-게’와 결합한 예문은 하나밖에 없고 ‘-지 않-’과 결합한 예문은 하나가 있다. 이 예문에서의 ‘때맞다’는 동사처럼 쓰인다.

(24) 태반의 원조 물자가 소비재여서 韓國 사람에게 때맞지 않는 소비 성향을 자극하게 되었다.

‘덩그렇다’는 말뭉치에 ‘-게’와 결합한 예문이 38개가 있다. ‘-게’ 외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7개가 있고, ‘-던’과 결합한 예문 2개가 있다. 예문 (25)를 보면 ‘덩그렇다’는 ‘-ㄴ, -던’과 결합해도 자연스럽다.

(25) 가. 덩그런 국립극장 앞에 서면 어디에도 우리의 연극사를 자랑하는 기념상이 안 보인다.

나. 도시의 거대한 빌딩 위로 지금 막 떠오른 덩그런 달님이 계집애의 이마 위에서 더할 수 없이 밝고 정다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다. 오 교수와 나는 산골짜기 논밭 한가운데 무인도처럼 덩그런던 그의 집으로 간신히 차를 몰고 갔다.

라. 내 머릿속에는 그렇듯 덩그런던 만우정의 본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덩그렇다’는 ‘-ㄴ’ 외에 ‘-게’와 결합한 예문도 적지 않다. ‘-게’와 결합한 예문은 빈도가 압도적이지 않다. 그리고 ‘-던’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덩그렇다’는 용언의 역할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고는 ‘덩그렇다’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본다.

‘심심찮다’는 말뭉치에 ‘-게’와 결합한 예문이 215개가 있다. ‘-게’ 외에 ‘-은’과 결합한 예문은 10개가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은’과 결합한 예문은 하나가 있다. ‘-을’과 결합한 예문은 2개가 있고, ‘-아’와 결합한 예문은 1개가 있다. 아래 (26)을 보면 ‘심심찮다’는 ‘-은’과 ‘-을’과 결합해도 자연스럽다.

(26) 가. 90년대를 여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왕래협상’을 제의한 김일성의 신년사가 심심찮은 화제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나. 총각들 사이에서도 다이어트는 심심찮은 화제거리다.

다. 우리는 심심찮을 정도로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는 문화재 발견·발굴 기사 덕택으로 이제는 거의 면역이 되어 새로운 유물이 나와도 흥분하고 감탄하지 않는다.

라. 이러한 동안 이들은 큰 사냥은 못했으나 심심찮을 정도의 잔짐승들은 잡았다.

마. 악용사례도 심심찮아.

‘심심찮다’는 ‘-게’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도 적지 않으며, ‘-게’와 결합하는 예문의 빈도가 압도적이지 않다. 따라서 ‘심심찮다’는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동그맣다’의 경우 말뭉치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문법 정보와 달리 ‘-게’와 결합한 예문은 없다. 그러나 ‘-ㄴ’과 결합한 예문은 2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동그맣다’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27) 가. 허공을 마구 더듬자 동그만 스위치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 산골을 캐낸 동그마한 굴 속에 약수터처럼 석간수가 흘러 고여 있고 그 안에 습기로 거뭇거뭇하게 변한 책상이 하나 놓여 있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게’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2> ‘-게’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게’ 형 제약 형용사	번질나다, 뺨질나다, 뺨찢나다, 주살나다, 울목갓다, 참따랄다, 참딸다
‘-게’ 형 제약 경향 형용사	때맞다, 늘씬하다 ¹
제약이 없는 형용사	덩그렇다, 심심찮다, 동그말다

‘-게’ 형 제약 형용사들은 모두 말뭉치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게’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가 없다. 활용형이 하나이므로 이들의 부사형은 모두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게’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3> ‘-게’ 형 제약 형용의 특징 정리

표제어	부사로 간주 가능성
번질나다	번질나게
뺨질나다	뺨질나게
뺨찢나다	뺨찢나게
주살나다	주살나게
울목갓다	울목갓게
참따랄다	참따랄게
참딸다	참딸게

3.2.2. ‘-고’ 형 형용사

사전에서 주로 ‘-고’ 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고’ 외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고’ 형 형용사의 활용 양상

표제어	연결 요소(빈도)
무정처하다(無定處--)	-고(1)
무조건하다(無條件--)	-고(10)
무작정하다(無酌定--)	-고(3), -ㄴ(4)

‘무정처하다, 무조건하다’는 말뭉치에 ‘-고’와 결합한 예문만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고’ 형 형용사로 간주한다. 그러나 ‘무작정하다’는 말뭉치에 ‘-고’ 외에 ‘-ㄴ’과 결합한 예문도 있다. ‘-ㄴ’과 결합한 예문은 4개가 있고 ‘-고’와 결합한 예문보다 더 많다. 따라서 본고는 ‘무작정하다’는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28) 가. 그 한 마디에 무작정한 매타작이 시작되었다.

나. 그 슬픔은 단순히 어미를 잃었다거나 영순이를 잃은 것으로 인한 격렬하고도 무작정한 슬픔과는 달랐다.

다. 성기와 성행위 장면 클로즈업, 엿보기, 사도 마조히즘, 강간 등 하드 코어 포르노 방법론을 모두 동원하지만, 영화는 무작정한 애욕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정치성도 짙다.

라. 문학은 말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의 무작정한 확대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5> ‘-고’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고’ 형 제약 형용사	무정처하다(無定處--), 무조건하다(無條件--)
제약이 없는 형용사	무작정하다(無酌定--)

‘-고’ 형 제약 형용사는 모두 말뭉치에서 ‘-고’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고’로 끝나는 부사로 ‘무턱대고, 울고불고, 이웁고’ 등이 있는데 본고는 ‘무정처하고, 무조건하고’도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6> ‘-고’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부사로 간주 가능성
무정처하다(無定處--)	무정처하고
무조건하다(無條件--)	무조건하고

3.2.3. ‘-아/어/여’ 형 형용사

사전에서 주로 ‘-아/어/여’ 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아/어/여’와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아/어/여’ 형 형용사의 활용 양상

‘-아/어/여’계	연결 요소(빈도)
미구하다01(未久一)	-여(1)
마지못하다	-여(375), -ㄴ(25), -여서(15), -ㄹ(2), -었다(2), -면서(1), -는(1), -듯(1), -겠던지(1), -여서라도(1), -여서(나마)(1), -여긴(1), -여하는(1)
머지않다	-아(283), -은(28), -아서(3), -았다(2), -았는가(1), -ㅁ(1), -ㄹ(1), -았다고(1)

‘미구하다’는 말뭉치에 ‘-여’와 결합한 예문만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구하다’를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마지못하다’는 말뭉치에 ‘-여’와 결합한 예문이 375개가 있다. 그러나 ‘-ㄴ’와 결합한 예문은 25개가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하나가 등재되어 있다. ‘-여서’와 결합한 예문은 15개가 있다. ‘-ㄹ, -었다’와 결합한 예문은 각 2개가 있다. 그리고 ‘-면서, -는, -듯, -겠던지, -여서라도, -여서(나마), -여긴, -여하는’과 결합한 예문은 각 1개가 있다. ‘마지못하다’는 아래와 같이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문도 있다. ‘마지못하다’는 ‘-여’ 외에 다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고 빈도도 낮지 않으므로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 (29) 가. 아무래도 맹물(여염집 사람)은 아니던데, '라고 연신 동정인지 호기심인지를 마지못했다.
- 나. 그의 아내는 아무래도 천더기로 큰 사람은 아닌데 하고 동정인지 호기심인지를 마지못했다.
- 다. 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하겠던지 제 손수건을 나에게 주었다.

‘머지않다’는 말뭉치에 ‘-어’와 결합한 예문은 283개가 있다. 이 외에 ‘-ㄴ’과 결합한 예문은 28개가 있다. ‘-아서’와 결합한 예문은 3개가 있고, ‘-았다’와 결합한 예문은 2개가 있다. 그리고 ‘-았는가’, 전성어미 ‘-ㅁ, -ㄴ’, 그리고 ‘-았다고’와 결합한 예문이 각 1개가 있다. ‘머지않다’도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있다. 따라서 ‘-어’ 외에 다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고 빈도도 낮지 않으므로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 (30) 가. 올바른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공부는 아직 머지않았는가?
- 나. 이 디스크에는 약 20기가바이트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백만 여권의 도서관 자료도 몇십 장의 디스크만 있으면 모두 저장할 수 있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어/여’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8> ‘-아/어/여’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아/어/여’ 형 제약 형용사	미구하다01(未久--)
제약이 없는 형용사	마지못하다, 머지않다

‘-아/어/여’ 형 제약 형용사는 ‘미구하다01(未久--)’ 하나뿐이다. ‘미구하다’는 ‘-어’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미구하여’를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의 논의에 따라 ‘-아/어/여’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9> ‘-아/어/여’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부사로 간주 가능성
미구하다 ¹	미구하여

3.2.4. ‘-아/어/여야’ 형 형용사

‘-아/어/여야’ 형 형용사는 ‘극상하다(極上--)’ 하나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극상하다’는 ‘수나 양, 정도 따위가 가장 크다’의 의미를 가진다.

(31) 가. 어떻게 그들이 한석봉의 이 신기한 필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극상해야 필을 들고 글자 그리기에나 만족하던 그들이 이런 호방한 필법과 서체를 어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 텐가.

나.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정황만 살펴보아도 이전처럼 한 가정에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아니라 극상해야 한두 명 밖에 안 된다.

(31가)는 ‘정도의 최대’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고, (31나)는 ‘수량의 최대’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다음은 ‘극상하다’가 ‘-아/어/여야’과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아/어/여야’ 형 형용사의 활용 양상

표제어	연결 요소(빈도)
극상하다(極上--)	-여야(2)

‘극상하다’는 말뭉치에 ‘-여야’와 결합한 예문만 존재한다. 따라서 ‘극상하다’는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극상하다’의 품사처리는 사전에 따라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⁶⁾, 《조중사전》⁷⁾, 그리고 《현대조선말사전》⁸⁾에서 ‘극상’과 ‘극상하다’에 대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32) 《표준국어대사전》

극상-하다 (極上--) [-쌍--] 「형용사」 (‘극상해야’ 꼴로 쓰여)

수나 양, 정도 따위가 가장 크다.

¶ 무슨 병이기에 삼 원씩이나 듣까? 그저 극상해야 한 일 원어치 약 먹었으면 낫겠지?《강경애, 인간 문제》

《조선말대사전》

극상 [명] ① 가장 좋은것 또는 그러한것. || ~의 치료법. | 만년필가운데서는 이것이 극상이다. / 그것은 상상력을 모두고 지혜를 합쳐 극상으로 그려낸 꿈 같은 리상이었다. | (부사로 《극상해야》 형으로도 쓰이여) 《가장, 아주, 기껏》의 뜻. | 극상해야 음악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일반적인 느낌이나 이야기 했지 선물흐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을 별로 없었다. ② 가장 높은 것. [極上]

극상하다 [형] (《극상해서》 또는 《극상해야》 형으로 쓰이여) 기껏해서 또는 가장 잘된 경우라야. || 극상해서 3메터이면 충분하다. | 그는 극상해야 열흘을 체류해있을 예정이었다. (장편소설 《거센 흐름》) / 일제통치하에서 벌목공들에게 차례지는 신발이란 극상해서 통버선에 짚신이였다. [極上]

《조중사선》

극상해서 [부] 最 (好), 頂 (多), 充其量 || 이 나무는 ~ 100년 살수 있다
这种树顶多能活一百年

《현대조선말사전》

극상 [명] 가장 좋은것 또는 그러한것. || ~의 치료. 만년필가운데서는 이것이

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동광출판사, 1992.

7) 조선외국문도서관출판사, 중국민족출판사, 1992.

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백의도서출판사, 1988.

극상이다. ㄷ(부사적으로 《극상해서》, 《극상해야》 형으로도 쓰이며) 《가장, 아주, 기껏》의 뜻. ㄴ 극상좋아야 이 정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극상해서 [부] 기껏해서 또는 가장 잘된 경우라야. ㄴ ~ 3미터면 충분하다.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극상하다’는 형용사이고 ‘극상해서’ 또는 ‘극상해야’형으로 쓰이며, ‘기껏해서 또는 가장 잘된 경우라야’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명사 ‘극상’의 뜻풀이에서 부사로 ‘극상해야’ 형으로도 쓰여 ‘가장, 아주, 기껏’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사 ‘극상해야’의 표제항이 없다. 그리고 《조중사전》과 《현대조선말대사전》에서는 형용사 ‘극상하다’는 없고 ‘극상해서’를 부사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극상해서’ 또는 ‘극상해야’를 부사로 간주하지 않았다. 본고는 말뭉치에서 ‘극상하다’는 ‘극상해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극상해야’만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극상하다’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 ‘극상하다’의 특징 정리

표제어	부사로 간주 가능성
극상하다	극상해야

3.3.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다음은 2가지 이상의 제약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를 살펴보자. 이들은 활용형에 따라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와 ‘-ㄴ, -게’ 형외에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로 나뉜다. 먼저 말뭉치를 통해 이들을 제약 형용사, 제약 경향 형용사,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분류한다. 그 다음은 2.3.2에 검토한 바와 같이 제약 형용사들이 실제로 해당 활용형으로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들 제약 형용사의 활용형을 관형사 혹은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

는지 살펴본다.

3.3.1.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

사전에서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ㄴ’과 ‘-게’와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의 활용 양상

표제어	연결 요소(빈도)
때아니다	-ㄴ(124), -게(12)
버젓하다	-ㄴ(35), -게(19), -고(2), -니(1)
참답다	-ㄴ(493), -게(12), -ㄴ(5), -고(2), -ㄴ가(1)
마침맞다	-게(2), -게도(1)
막되다	-어(먹은)(22), -ㄴ(22), -게(4), -고(2), -어 가다(2), 막되(2), 막되 먹은(1)

‘때아니다’는 말뭉치에 ‘-ㄴ, -게’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없다. 따라서 본고는 ‘때아니다’를 ‘-ㄴ, -게’ 형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버젓하다, 참답다’는 말뭉치에 ‘-ㄴ, -게’와 결합한 예문이 제일 많지만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도 존재한다.

‘버젓하다’는 (33)처럼 ‘-고, -니’와 결합해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본고는 ‘버젓하다’를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33) 가. 버젓하고 점잖게 꾸짖으니 포졸들은 모두 송구하여 코를 쪽 빼고 둘러서 있었다.

나. 집집마다 사랑채가 있고 대문이 버젓하고, 안채는 높게 짓고, 안방과 부엌을 일자(一字)로 두고, 안방은 윗방 쪽에서 꺾어서 머릿방을 두기 때문에 밝다.

다. 그는 그러한 중에서도 주인 윤 직원 영감의 살림이나 사업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그대도록 바닥이 맑아 빠안히 들여다보이는 제 비용도 가다간 용하게 재주를 부려서 버젓하니 절약을 해 내곤 합니다.

‘참답다’도 ‘-ㄴ, -게’ 외에 ‘-고, -ㄴ’, 그리고 전성어미 ‘-ㄱ’과 결합한 예문이 많다. 따라서 ‘참답다’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 (34) 가. 죽음으로도 누를 수 없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 참답고 용감해야 한다.
나. (전 생략) ... 참답고 착하게 살아가야 옳을 것이다.
다. 하지만 그런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만나는 자가 얼마나 참다운가.
라. 우리네 집의 참다운은 과연 무엇인가.
마. 어차피 자연과학의 정확도에 못 미칠 것이 뻔하다고 해서 참다운을 내세울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인가?

‘마침맞다’의 경우 말뚱치에 ‘-게, -게도’와 결합한 예문만 있고 ‘-ㄴ’과 결합한 예문은 없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마침맞다’는 ‘-ㄴ’과 결합한 예문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와 결합한 예문도 하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마침맞다’를 제약 경향 형용사로 간주한다.

- (35) 가. 시누이에게 마침맞은 남편감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일에 마침맞은 사람이 있다.
다. 대영은 연달아 대여섯 잔이나 기울인 술이 그의 주량에 마침맞아, 이를테면 딱 이야기하기에 좋은 정도이었었다.《채만식, 냉동어》

‘막되다’는 말뚱치에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와 달리 ‘-어, -ㄴ’과 결합한 예문은 제일 많아 각 22개가 있다. ‘-게’와 결합한 예문은 4개만 있고, ‘-고’, ‘-어가다’와 결합한 예문은 각 2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막되’로 잘못 쓰인 예문도 2개가 있고 ‘막되 먹은’으로 잘못 쓰인 예문이 1개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막되다’를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한다.

주로 ‘-ㄴ’ 관형사형과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형용사의 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다.

<표 23> ‘-ㄴ, -게’ 형 형용사의 판정 결과

‘-ㄴ, -게’ 형 제약 형용사	때아니다
‘-ㄴ, -게’ 형 제약 경향 형용사	버젓하다, 참답다, 마침맞다
제약이 없는 형용사	막되다

‘-ㄴ, -게’ 형 제약 형용사는 ‘때아니다’ 하나뿐이다. ‘때아니다’는 ‘-ㄴ, -게’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할 수 없고 파생 부사와 특수 문형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때아닌’을 관형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고 ‘때아니게’를 부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때아니다’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24> ‘-ㄴ, -게’ 형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문형 정보	관형사로 간주 가능	부사로 간주 가능성
때아니다	×	때아닌	때아니게

3.3.2.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

‘-ㄴ, -게’ 형 외에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다직하다, 오죽하다, 여복하다’ 3개가 있다. 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다직하다’는 주로 ‘다직하면, 다직해서, 다직해야’ 꼴로 쓰이고 ‘오죽하다’는 주로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랴’ 꼴로 쓰인다. ‘여복하다’는 주로 ‘여복하면, 여복해야’ 꼴로 쓰인다. 이들 형용사가 사전 기술과 같은 활용형으로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형용사의 결합 어미 및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의 활용 양상

표제어	연결요소(빈도)
다직하다	
오죽하다	-면(159), -었으면(61), -랴(14), -ㄴ까(13), -어야(11), -겠는가(10), -었겠는가(8), -었을까(7), -겠느냐(6), -겠어요(6), -겠습니까(6), -었겠나(4), -십니까(4),

	-겠냐(3), -어(3), -어서(3), -었겠냐(3), -겠냐(2), -었으랴(2), -었겠어(2), -ㄹ(2), -ㄴ(2) -겠어(1), -겠느냐고(1), -겠소(1), -실까(1), -리오(1), -었으랴(1), -시면(1), -었을까마는(1), -었겠느냐(1), -었겠니(1), -었겠습니까(1), -었어요(1), -었건데(1), -었으면사(1), -었으려고(1), -라구(1)
여복하다	-어야(12), -면(7), -었을(2), -것소만(1), -ㄴ(1)

‘다직하다’는 말뭉치에 예문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예문이 있고 아래와 같다. 이들 예문의 활용 양상은 사전의 기술과 일치하므로 ‘다직하다’를 제약 형용사로 간주한다.

- (36) 가. 이 논외 추수야 다직하면 벼 석 섬이 될까.
 나. 그 사람 다직해서 한 십 리나 갔을 걸세.
 다. 다직해야 쌀 몇 가마인데 수레를 세 채나 가져 갈 게 뭐 있다.

‘오죽하다’는 ‘-여, -면, -랴’ 외에 ‘-ㄹ까, -어야’ 등 많은 어미와 결합할 수 있고 ‘-여’와 결합한 예문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 중에 ‘-면, -었으면’과 결합한 경우가 가장 많다. 예문이 많으므로 일부만 제시한다.

- (37) 가. 오죽하면 부부 싸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나. 형부도 오죽했으면 집을 나갔겠어.
 다. 그런 아들이 저렇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
 라. 오죽해야 자기네 조상의 치부까지 팔아먹겠는가.
 마.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도 오죽하겠는가?
 바. 수도권인 우리 지역도 이 모양인데 전라도나 타 지방은 오죽했겠는가?
 사. 답답하고 속 타는 심정이야 오죽했을까.
 아. 어린 것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오죽하겠느냐?

‘여복하다’는 ‘-면, -어야’와 많이 결합한다. 그리고 ‘-었을, -것소만, -ㄴ’과 결합한 예문도 나온 경우가 있다.

(38) 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저렇게 중환자로 그냥 팽개쳐둔 채 훌쩍 집을 나와 버렸으니 여복했을 것인가.

나. 그이 같은 사람으로서야 여복했을 것인가.

다. 성님 허시는 일 여복히겼소만, 아모리 그려도 갈 사람이 좋다고 혀야 성사가 되는 게지 송장 진배없는 이 에미가 무신 심으로 가타부타 푹부러진 말을 헐 것이요.

라. 여복한 사람이 자식을 가리키지 못허우.

‘오죽하다, 여복하다’는 사전 기술에 나타난 어미 외에 다른 어미와 결합한 예문이 많다. 따라서 이들을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표 26>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형용사의 판정 결과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	다직하다
제약이 없는 형용사	오죽하다, 여복하다

결국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는 ‘다직하다’ 하나뿐이다. ‘다직하다’는 ‘다직하면, 다직해서, 다직해야’를 모두 부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을 모두 개별 부사 표제어로 등재한다면, 사전 기술의 경제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직하다’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27> 2~3가지 활용형으로 쓰이는 제약 형용사의 특징 정리

표제어	부사로 간주 가능성
다직하다	다직하면, 다직해서, 다직해야

4.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표준국어대사전》에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의 목록은 이미 2.2.에 제시하였다. 이들을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 부정 표현과 결합한 예문의 수와 긍정 표현과 결합한 예문의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본고의 부정 표현은 ‘힘들다, 어렵다, 없다, 불가능하다’ 등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수사 의문문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통사적 부정의 범위보다 넓다.

<표 1> 부정 표현과 긍정 표현과의 결합 빈도

표제항	부정 표현	긍정 표현
남부럽다	75	0
좁하다	5	0
석연하다(釋然--)	245	0
마뜩하다	50	0
당하다01(當--)	117	0
달갑다	224	21
탐탁하다	130	4
여하하다 ¹⁾	303	2
변변하다	262	3
별다르다 ²⁾ (別---)	1305	24
가당하다(可當--)	129	1
맞갓다	2	1
대수롭다	413	1
칠칠맞다	0	4
시답다(實▽--)	69	2
여간하다(如干--)	216	4

검색 결과에 따르면, ‘남부럽다, 좁하다, 석연하다, 마뜩하다, 당하다01’은 긍정 표현과 공기한 예문이 없고 부정 표현과만 공기한다. 나머지 형용사들은 긍정 표현과 소수 공기한다. 특이한 것은 긍정 표현과 소수 공기한 형용사 중에서 ‘대수롭다, 칠

1) ‘다시 말하면, ‘보기 좋다’·‘듣기 좋다’·‘먹기 좋다’는 것은 물론 ‘운수가 좋다’는 것도 결국 ‘뜻대로 된다’는 말, ‘여의(如意)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예문의 경우 ‘여의하다’가 긍정문에 쓰인지 부정문에 쓰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이 표에 통계하지 않는다.

2) 의문문 하나가 있고 여기서도 통계하지 않는다.

칠맞다, 시답다, 여간하다’는 긍정형으로 쓰일 때 부정형의 의미와 같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간한 힘이 아니면 그 박스를 들 수 없다’처럼 ‘여간한 힘’은 ‘보통의 힘’이 아니고 ‘여간하지 않은 힘’이다. 따라서 이들 형용사는 4.3에서 따로 살펴본다.

4.1. 부정 표현과만 공기하는 형용사

본 절에서는 말뭉치 예문에서 모두 부정 표현과만 공기하는 형용사를 살펴본다. 이런 형용사는 ‘남부럽다, 좁하다, 석연하다, 마뜩하다, 당하다⁰¹’ 등 총 5개가 있다.

4.1.1. 남부럽다

‘남부럽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남의 좋은 점이나 우월한 점이 부럽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³⁾ ‘남부럽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남부럽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남부럽지 않-	-게(39), -은(14), -을(1), -다(1), -는(1), -이(1)
남부러우-	-르(16), -ㄴ(1), -어 하는(1)

‘남부럽다’는 ‘남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은’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특이한 것

3) ‘남부럽다’가 긍정문에 쓰인 유일한 예는 아래와 같다. 하지만 이 예문은 ‘남이 부러워하다’에서 조사 ‘이’가 실현되지 않은 ‘남 부러워하는’ 일이고 ‘남부러워하다’가 아니다.

남부러워 하는 안정된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둔 것이다.

은 ‘남부럽다’가 부정 표현과 직접 결합하지는 않는 경우, 주절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용된다. 이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르’의 결합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 경우, ‘남부러울’이 수식하는 명사는 ‘것, 데’만 가능하고 서술어는 주로 ‘없다’가 쓰인다. ‘남부러울 것이 없다, 남부러울 데 없다’는 ‘남부럽지 않다’와 의미가 거의 같다.

(1) 가. 어린시절 역시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나. 남편의 일도 잘 풀리고 넓은 대지에 이층집에 사니 남부러울 게 없었다.

다. 남부러울 것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한다.

라. 그의 현실은 남부러울 데 없이 완벽하고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남부러울’이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지만 후행 용언이 ‘없다’가 아닌 경우는, 수사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부정소가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부정문의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다.

(2) 사실 남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

‘남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다’ 등은 부정문 등의 절제된 표현으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인 완서법(litotes)⁴⁾의 하나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빨리 수락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지체 없이 수락했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일례로 영어의 ‘not bad’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훌륭함’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과 비슷하다.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보다 ‘자식 농사를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가 긍정의 정도가 크게 느껴진다.

4) 이종오(2000)에 의하면 완서법은 수사학자들에 있어 절제와 경의로써 표현하고자하는 사상이나 사물을 의도적으로 경감시키면서 그 효과는 더 많은 것을 암시하는 문체이다. 완서법은 경감 또는 완화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반대의 부정 또는 대립의 부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완서법은 ‘긍정적 완서법’이라 불리는 긍정문의 형식과 ‘부정적 완서법’이라 불리는 부정문의 형식과 같은 두 개의 특수한 형식으로 나타나며, 부정적 완서법은 다시 이중 부정과 반대의 부정 두 종류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다루는 ‘남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다, 남부러운...없다’ 등 표현은 바로 부정적 완서법 중의 반대의 부정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4.1.2. 줌하다

‘줍하다’는 ‘어지간하고 웬만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에 뒤에 ‘않다, 못하다, 없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줍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3> ‘줍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줍하다	줍해서(5)

‘줍하다’는 말뭉치에서 ‘줍해서’의 형태로만 쓰이며 예문은 아래 (3)처럼 5개밖에 없다. ‘줍하-’에 직접 부정형이 붙지 못하고 ‘줍해서’가 일종의 부정극어처럼 쓰여, 주절은 부정문을 요구한다.

(3) 가. 줍해서 꺾이지 않는 주호도 풀이 죽어 어두운 얼굴이다.

나. 그런데 왜놈들이 이겼이니깐 줍해서 고향에는 못 돌아오실 기라고 하더랍니다.

다. 영선은 줍해서는 다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 남규일의 처는 줍해서는 남편이라는 사람의 그 유난스러운 행태와 그로 말미암은 이 집의 괴이한 분위기에는 안존하게 젖어들 수가 없었다.

마. 그 과수덕도 저 옛날 상해시절부터 줍해서는 절대로 값싸게 눈물 같은 것은 안 보이는 분이었는데, 우리 내자 앞에 이 점을 털어놓으면서는 평평바가지로 퍼내듯이 눈물 콧물을 뒤범벅으로 쏟아내더랍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을 따르면 ‘줍하다’는 ‘줍해, 줌하고, 줌한’의 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물다. 또한 ‘줍하다’는 시제, 양태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줍처럼’의 의미를 가진 ‘줍해선’이라는 부사가 등재되어

있지만 ‘좁해서’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좁해선’과 같이 ‘좁해서’도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3. 석연하다

‘석연하다’는 ‘의혹이나 꺼림칙한 마음이 없이 환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흔히 뒤에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는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석연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4> ‘석연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석연하지	않- -은(133), -다(35), -다는(10), -게(10), -고(5), -았다(5), -았던(3), -다고(3), -지만(3), -다며(3), -아 하는(2), -기 때문(2), -아(2), -았었다(2), -르(2), -았지만(1), -습니다(1), -았습니다(1), -았으나(1), -아서(1), -는(1), -소(1), -으면서(1)
	못하-(11)
석연하-	-어 하(3), -게(1), -ㄴ(1), -르 수 있-(1)

‘석연하다’가 긍정문에서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이 ‘석연하-’는 ‘석연하게, 석연한’처럼 부정과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주절은 모두 부정문이다. 그리고 ‘석연할 수 있겠는가?’는 수사 의문문이므로 부정문의 성격을 지닌다.

(4) 가. 이러한 ‘2개의 조형’ 설로써는 일본에 범종이 전래된 경위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종의 형식이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고 중국 본토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석연하게 설명할 수 없다.

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 할 때는 마음에 석연한 것을 느끼지 않으나, 단백질로 되었다든지, 청소(靑素)로 되었다든지 하면 구극의 설명이 붙은 것 같이 여기고 안심한다.

다. 그러나 제군들 자신은 과연 이러한 변명으로 석연할 수 있겠는가?

‘석연하다’는 ‘석연하지 않다’처럼 문장 종결 서술어로 많이 쓰일 수 있다. 말뭉치에서 예문은 35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다른 제약 형용사들과 차이가 있다.

4.1.4. 마뜩하다

‘마뜩하다’는 ‘제법 마음에 들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않다, 못하다’와 함께 쓰인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마뜩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5> ‘마뜩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마뜩지(치) 않-	-은(16), -게(8), -아 하는(6), -았다(3), -다(2), -아(2), -아서(2), -았어(1), -지만(1), -았지만(1), -던(1), -았던(1), -긴 해도(1), -고(1), -기도 하지만(1), -르 (뿐 아니라)(1), -았으나(1)
마뜩하지 못하-	(1)

‘마뜩하다’의 활용형은 ‘마뜩지 않-, 마뜩지 못-’에 연결된 경우만 있고 긍정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마뜩지 못-’의 형태로 쓰인 예문은 하나밖에 없다.

- (5) 이런 시각에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으로 최덕신(崔德新)씨의 미망인이 선정된 점도 마뜩지 못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뜩하다’의 부정 축약형 ‘마뜩잖다’는 19세기의 《한불조언》에서 이미 ‘맛득잔타’라는 하나의 표제항으로 등재되었고 지금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하나의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4.1.5. 당하다01

‘당하다’는 형용사로서 ‘사리에 마땅하거나 가능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흔히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인’ 형용사로 등재되었다. ‘당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6> ‘당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당치 않-	-은(67), -다는(6), -는(6), -습니다(5), -아(5), -게(5), -다(5), -으며(2), -다고(2), -았다(2), -아요(1), -았습니다(1), -지(1), -소(1), -는다(1), -는다는(1)
당치 못하-	-고(2), -니다는(1), -오나(1), -르따 <u>하</u> (1), -게(1)

‘당하다’의 활용형이 ‘당치 않-, 당치 못-’에 연결된 경우만 있고 긍정형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그리고 ‘당하다’는 ‘당치 않은’의 형태로 제일 많이 쓰이지만 ‘당치 않는’으로 쓰인 예문도 6개가 있다. 아래 (6)을 보면 이 예문들은 ‘당하다’를 동사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가. 새가 죽었기로 사람이 우는 것은 당치 않는 일이나, 너는 우리 때문에 죽었기로 곡을 하노라.

나. 할 일도 밀려 있고, 내 팔자에 이게 무슨 당치도 않는 유람이야.

4.2. 긍정 표현도 소수 가능한 형용사

본 절에서는 주로 부정 표현과 많이 공기하지만 긍정 표현도 소수 가능한 형용사를 살펴본다. 이 부류에 속한 형용사는 ‘달갑다, 탐탁하다, 여의하다, 변변하다, 별다르다, 가당하다, 맞갓다’ 등 총 7개가 있다.

4.2.1. 달갑다

‘달갑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는 문법 정보가 없다. ‘달갑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7> ‘달갑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 (빈도)	
달갑지	않-	-은(66), -았다(6), -다(5), -게(11), -아 하-(7), -르(4), -다는(3), -지만(2), -는(2), -았던(2), -았지만(1), -으리라(1), -습니다(1), -았었다(1), -았고(1), -자(1), -다고(1), -았었을(1)
	못하-	(1)
달갑-	-어 하-(74), -게(25), -ㄴ(13), -르(7), -ㄴ데(2), -고(1), -기만(1), -기 (보다는)(1), -다(1), -지만은(1), -었던(1), -ㄴ(1)	

‘달갑다’는 긍정 표현과 결합하는 경우가 21개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달갑다’도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달갑잖다’도 하나의 표제항으로 따로 등재되어 있다.

‘달갑다’가 긍정문에서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7) 가. 그는 어떤 도전도 달갑게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나. 하극상이나 농민 반란을 진정시키는 일은 모든 사람이 현재의 지위를 달갑게 생각하도록 하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다. 감자로 점심을 때웠지만, 저녁엔 햇콩을 까넣고 끓인 밀가루 나물죽을 달갑게 그릇 반이나 먹었다.

‘달갑다’는 ‘달가워하-, 달갑지 않은’으로 많이 쓰이고 ‘달갑게’로도 많이 쓰인다. 그리고 ‘달갑다’는 긍정문에서 문장 종결 서술어로 거의 쓰이지 않고, 말뭉치에서 예문은 하나가 있지만 어색해 보인다.⁵⁾

5) 예문은 아래와 같다.

4.2.2. 탐탁하다

‘탐탁하다’는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형용사이다. ‘탐탁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8> ‘탐탁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탐탁(하)지	않-	-게(38), -은(15), -아 하-(6), -고(4), -다(3), -았다(3), -았으나(2), -아(2), -은데(2), -으나(1), -지만(1), -았겠지만(1), -았던(1), -았고(1), -았던가(1), -다 (하더라도)(1), -기 때문(1), -거튼요(1), -기로(1), -소(1)
	못하-	(3)
탐탁하-	-게(28), -ㄴ(7), -어하-(3), -고(1), -다(1), -는(1), -다고(1), -ㄹ(1), -어서(1), -었던(1), -여(1)	

‘탐탁하다’는 ‘탐탁지 않게, 탐탁하게’로 제일 많이 쓰인다. ‘탐탁하다’가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이 4개가 있다.

- (8) 가. 제가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중 탐탁하게 여기는 게 바로 저 아이지요.
 나. 당신은 <아름다운 질투>라는 우리 말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영어 제목을 냅다 질러 버린 병석이를 홍길동이 대단히 탐탁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다. 그가 열네 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라. 아무 말썽이 없을 때 양자의 관계는 탐탁한 것이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그를 보도하는 신문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권유받은 세미나 초청은 대개 달갑다.

4.2.3. 여의하다

‘여의하다(如意--)’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는 문법 정보가 없다. 하지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주로 ‘여의치’의 꼴로 ‘않다’와 함께 쓰여’라는 문법 정보가 있다. ‘여의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9> ‘여의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여의하지	않-
	-을(45), -아(33), -은(27), -으면(22), -았다(21), -다(19), -자(16), -다면(10), -다는(5), -게(5), -아서(3), -았던(3), -다고(3), -았다는(2), -그던(1), -거나(1), -ㄴ(1), -았더라면(1), -아지고(1), -았을(1), -습니다(1), -았다고(1), -았고(1), -고(1), -는(1), -으신(1), -아가지고(1), -으니(1), -았다면서(1), -던(1), -았기 (때문에)(1), -기 (때문에)(1), -으리란(1), -았어요(1), -군요(1), -기는(1), -았습니다(1)
	못-(62)
여의하-	-면(2), -나(1), -고(1), -게(1), -ㄴ(1), -다는(1)

‘여의하다’가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2개밖에 없고 예문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본고는 ‘여의하다’도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 (9) 가. 만일 러시아인의 뜻이 여의하면 동방에 있는 영국 권세가 방해될 것이니, 우리는 불가불 극력하여 막으리라 하더라.
- 나. 자연 진정으로든지, 외양으로든지, 일본의 영귀한 광채를 일월같이 빛내어 주니 이는 다 일본 당국자의 십분 여의한 바이더라.

‘여의하다’는 ‘-지 않-’ 부정과 ‘-지 못-’ 부정을 모두 결합할 수 있고, 특히 ‘-지 못-’ 부정과 결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지영(2004: 179)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못’은 ‘불급(不及)’ 즉, ‘화자가 기대하는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친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여의하다’도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가 있으므로 ‘-지 못-’ 부

정과 많이 결합한다고 본다.

4.2.4. 변변하다

‘변변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의어로 등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미를 가진다.

- (10) 「1」 됴뵁이나 생김새 따위가 흠이 없고 어지간하다.
- 「2」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
- 「3」 지체나 살림살이가 남보다 떨어지지 아니하다.

‘변변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정과 함께 쓰인다는 문법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변변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0> ‘변변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변변하지	않-	-은(32), -아(8), -다(6), -지만(6), -습니다(5), -았다(3), -으면(2), -고(2), -아도(2), -으나(1), -으나마(1), -았고(1), -다만(1), -구만(1), -다는(1), -던(1), -게(1), -네(1), -았지만(1), -사오나(1), -다고(1)
	못-	(54)
변변하-	-ㄴ(117), -게(13), -기는커녕(1), -었겠는가(1), -었으면(1)	

‘변변하다’는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3개밖에 없다. 따라서 ‘변변하다’는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로 간주할 수 있다. ‘변변하다’가 긍정문에서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11) 가. 그는 아들을 향해 변변한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약간 느리면서 약간은 억누르는 듯한 억양으로 말문을 열었다.
- 나. 그래도 쓸 만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야, 가스레인지 한 대와 언니가 들어

놓은 오디오 세트밖에는 없으면서 자신들의 물건이나 책 따위들, 생각하기에 변변한 것들만을 노닥거리려 챙겼다.

다. 그는 수컷들이 흔히 변변하게 생긴 암컷을 대할 때 갖기 쉬운 저열한 사심에서 똑 떠나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래의 예문은 긍정문의 형식이지만 ‘-기 힘들다, -기 어렵다’ 구성과 함께 쓰였다. 이들은 통사적으로는 긍정문이라도 의미는 부정문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으로 판단하였다.

(12) 가. 2000년 1월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시로 승격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변변한 공장시설도 찾아보기 힘들고 병원 등 도시기반 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지역이다.

나. 야탑동 분당 테크노파크, 서현동 휴맥스 벤처타워 등 3~4곳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임대 빌딩을 찾기 어렵다.

다.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노래와 춤판에 아이들의 신경이 온통 쏠리는 탓도 있었지만 변변한 한글교재를 구하기 힘든 때문이기도 했다.

‘변변하다’는 ‘-지 않-’ 부정과 결합할 수 있고 특별히 ‘-지 못-’ 부정과도 많이 결합한다. ‘변변하다’도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가 강하므로 ‘-지 못-’ 부정과 많이 결합한다고 본다.

4.2.5. 별다르다

‘별다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른 것과 특별히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인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별다르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1> '별다르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별다르-	-ㄴ(1257), -이(28), -ㄹ(19), -게(10), -ㅁ(8), -아(1), -어지다(1)
별다르지 않-	-으리라는(2), -ㄹ(1), -고(1), -다(1), -다는(1)

'별다르다'는 본 장의 다른 형용사와 달리 '별다르지 않-'으로 많이 쓰이지 않고, 관형사형 '별다른'으로 '없다/아니다/않다/못하다'와 공기하여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별다르다'가 직접 부정 표현과 공기하지 않은 예문은 총 1324개가 있지만 그중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24개밖에 없다. '별다르다'의 주절이 긍정문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3) 가. 완전히 별다른 관점에서 본 일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나. 왜냐하면 아폴로 우주인은 달과는 별다른체가 되므로 지구의 중력으로 지구에 끌려온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 버스가 삼팔선을 넘고 있었다. 삼팔선. 순구는 별다른 감회에 젖어드는 자신을 느꼈다.

아래의 예문은 긍정문의 형식이지만 구성 '-기 힘들다, -ㄹ 리 만무였다, 미흡하다, 미미한 상태다' 등 표현이 나타난다. 결국 이들도 의미적으로는 부정의 의미이므로 본고는 이들을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으로 산정하였다.

(14) 가. 대신 동 건물의 옥상은 별다른 용도를 부여하기 힘들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 부랑배도 아닌 서사를 따라간다 하여도 별다른변위가 일어날 리 만무였다.

다. 최수철이 여기까지 생각을 이끌어 간 것은, 그가 쓴 지금까지의 글들(메모)이 아무리 잘해보아도 단편적이고 별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라. 이외 워너뮤직, 소니뮤직, 한국 BMG 등도 본격적인 영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영화계는 별다른 대응도 자구의 노력도 대응방

안도 미미한 상태다.

‘별다르다’는 ‘별다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별다를’에 후행하는 명사는 모두 ‘것, 바, 줄’ 등 의존 명사이고 ‘별다를 것이 아니다’처럼 부정 서술어와 같이 쓰인다.

4.2.6. 가당하다

‘가당하다’는 ‘대체로 사리에 맞다’, 그리고 ‘정도나 수준 따위가 비슷하게 맞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는 문법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가당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2> ‘가당하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가당치	않-	-은(60), -다(12), -다는(7), -게(7), -을(4), -다고(2), -다면(1), -으면(1), -았으니까(1), -기만(1), -게만(1), -고(1), -거늘(1), -ㄴ(1), -으니(1), -아(1), -게도(1), -소(1), -았대(1), -아요(1)
	못하-	(1)
가당하-	-기나(가당키나)(11), -ㄴ(5), -ㄴ가?(3), -시냐고(1), -오?(1), -랴?(1) -냐?(1)	

‘가당하다’는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가당하다’도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가당하다’가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15)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이들에게나 가당한 것이리라 느껴졌다

4.2.7. 맞갖다

‘맞갖다’는 ‘마음이나 입맛에 꼭 맞다’의 의미를 가지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로 ‘맞갖지 않다’ 구성으로 쓰이는 형용사로 등재되었다. ‘맞갖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3> ‘맞갖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맞갖지 않-	-은(1), -은데다(1)
맞갖-	-은(1)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형용사라 말뭉치에서도 예문이 (16)에 나타난 3개밖에 없다.

- (16) 가. 주인마누라의 맞갖지 않은 버릇을 잊어보려고 문정도 단숨에 잔을 비웠다.
 나. 종인들의 식탐이 맞갖지 않은데다, 석담의 담론까지 잔주로 치는 눈치가 역연하여 바빠 일어서고도 싶었다.
 다. 함 신부님, 진교훈 교수님 두 분께서도 오늘을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민족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고뇌와 아픔을 깊게 보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하느님께 맞갖은 봉헌을 하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16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기술과 달리 ‘맞갖다’가 긍정문에서 쓰이는 예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맞갖다’는 ‘맞갖게’로 긍정문에서 많이 쓰이고 뉴스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특이한 것은 이런 뉴스의 내용은 모두 기독교와 관련된다.

- (17) 가. 과연 이를 현대 상황에 맞갖게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뉴스 앤조이》 2017.10.30, <다종교 시대, 기독교의 길을 묻다>, 최주훈>
 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에 맞갖게 살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12.17, <[하느님과 트윗을] (31) 그리스도인은 다

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나요>, 서중빈 기자)

다. 남은 삶을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하느님 뜻에 맞갖게 살아가는 것이 꿈 이라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2018.04.15, <레지오 주회합에 30년 개근 한 마산교구 양덕동본당 정현부씨>, 신동현 기자)

라.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이 돼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갖게 살 것을 촉구하 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07.15, <생명농업 40여년 외길... 막힌 관로와 농사 빛에 '흔들'>, 오세택 기자)

따라서 '맞갖다'는 주로 '맞갖지 않은' 구성으로 쓰이고 기독교와 관련된 문장에서 긍정형으로 쓰인 형용사다.

4.3. 부정형과 긍정형이 의미 차이가 없는 형용사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중에 긍정형으로 쓰일 때 부정형과 의미 차이 가 없는 경우가 있는 형용사가 있다. 즉, 본디 부정문에 쓰였으나 나중에는 부정 표 현이 없는 긍정문에서도 부정 표현이 포함된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대수롭다, 칠칠맞다, 시답다, 여간하다' 총 4개다.

4.3.1. 대수롭다

'대수롭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부 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이는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다. '대수롭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4> '대수롭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대수롭지	않- -게(169), -은(109), -다는(15), -는(6), -을(4), -았다(2), -았던(2), -다(1),

	-지만(1), -았지만(1), -아요(1), -고(1), -았으나(1), -았기에(1), -았을(1)
	못-(1)
대수롭-	-게(43), -ㄴ(34), -ㄹ(12), -다고(2), -이(2), -어 하-(1), -겠어요?(1), -고(1), -던지(1), -냐고(1)

‘대수롭다’가 직접 부정 표현과 공기하지 않은 예문은 총 98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형식적으로 볼 때 완전한 긍정문인 예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예문에 쓰인 ‘대수롭다’는 사실 ‘대수롭지 않다(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의미가 같다.

(18) 몸무게가 70킬로가 넘겠다는 등 맨날 놀림감이 됐어요. 네. 그래 처음에는 대수롭게(≒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꼭 쓸데없이 끼더라고요...

‘대수롭다’의 이러한 쓰임은 말뭉치 외에도 발견되었다. 아래의 예문은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로, 여기서의 ‘대수롭게’도 ‘대수롭지 않게’의 의미로 쓰였다.

(19) 가. 그 애가 가고 난 20분뒤 쯤에 발신제한번호로 전화가 왔다. 빨리 옥상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가 죽는다는 말만 하고 끊었고 난 처음에는 대수롭게(≒대수롭지 않게) 장난전화로 여겼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해서 옥상으로 서둘러 올라가보았다. (네이버 카페, <어린사랑> 19화 장훈이야기, 달비루)

나. 대상포진의 가장 대표적 합병증은 신경통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시킬 수 있어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통증이 남을 수 있다. 또 대수롭게(≒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수포를 터뜨릴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동양일보》 2018.01.03, <‘면역력↓’ 공포의 통증이 엄습한다>, 하은숙 기자)

그리고 말뭉치에서 ‘대수롭다’는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은’ 등 부정형으로 많이 쓰인다. 부정 축약형 ‘대수롭잖다’도 많이 쓰이지만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수롭다’는 관형사형으로 쓰일 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또는 ‘대수로운 것이

없다'처럼 '아니다, 없다'와 결합하거나 수사 의문문에 쓰인다. '대수로울'의 경우 의존 명사 '것', '수'와만 공기한다.

- (20) 가. 한 사람의 꿈같은 것이야 별로 대수로울 것이 없다.
 나. 구원舊怨이야 대수로울 게 없다.
 다. 행운의 세대가 힘 있는 시대의 뛰어난 문학적 성취들을 훑쳐보는 즐거움? 그 즐거움 앞에서라면 나의 글과 비평과 문학적 이력이란, 무엇 대수로울 수 있을 것인가.

4.3.2. 칠칠맞다

'칠칠맞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2가지 의미로 등재되어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이고 두 번째 의미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이다. 이들의 문법 정보는 모두 "못하다, 앓다"와 함께 쓰여'라고 제시되어 있다. '칠칠맞다'가 말뭉치에서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5> '칠칠맞-'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요소(빈도)
칠칠맞-	-은(1), -게(1), -고(1), -다는(1)

'칠칠맞다'는 사전의 기술과 같이 '-지 못하다, -지 앓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없고, 긍정문에만 나타났다.

아래 (21)은 말뭉치에서 '칠칠맞다'가 쓰이는 예문들이다. 이 예문들에서의 '칠칠맞다'는 '칠칠맞지 못하다/칠칠맞지 앓다'의 의미와 같다.

- (21) 가. 내가 그렇게 칠칠맞은 여자로 보여?
 나. 그 완속보다는 반속이 맛있더라는 생각을 해줬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칠칠

맞게 그거를 그렇게 매고 갈 줄은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저귀 가방이든 뭐든 일단 그 당시엔 챙피할 줄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

- 다. 한 사나이가 자기 아내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칠칠맞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한 사나이를 찾아가 살해했다.
- 라. 이런 어머니에게서 나는 대강 어머니의 습성이나 소질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모양으로 오늘까지 앞뒤를 분별 못하는 미친 여자란다거나 칠칠맞고 얕전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악평은 겨우 모면하여 온 셈이어서 일생을 어머니에게서 체온으로 느껴 배운 <참을성> <인내> 그 한 가지로 이날까지의 나의 인생향로를 노닐해 온 것이다.

‘칠칠맞다’의 이런 쓰임은 말뭉치 외에 다양한 인터넷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이 예문들에 쓰인 ‘칠칠맞다’는 모두 ‘칠칠맞지 않다’의 의미로 쓰인 것들이다.

(22) 가. 6월 9일 방송되는 KBS Joy 로맨스파괴 토크쇼 ‘애의 참견’ 21회에서는 험맹하다 못해 칠칠맞은 여친 때문에 위기를 맞은 남자의 사연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뉴스엔》 2018.06.08, <‘연애의 참견’ 주우재, 칠칠맞은 여친 사연에 분노폭발 ‘정도껏 해야’>, 박수진 기자)

나. 또한 칠칠맞게 먹으면서 흘리는 은성의 옷을 털어주는 무심한 촌데레는 은성을 설레게도 만들었다. (OSEN 2018.05.08, <[미치겠다,너땀에 첫방①]“할 거 다한 청량멜로” 설레서 ‘미치겠다’>, 김수형 기자)

다. 나는 건축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내 아버지, 형, 삼촌 모두 건축가다. 그러나 나는 건축학을 배우지 않았다. 칠칠맞고 손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2018.10.12, <[Biz Times] “미래 기술은 직업의 파괴자가 아닌 재창조자”>, 윤선영 기자)

따라서, ‘칠칠맞다’의 기존 ‘-지 못하다, -지 않다’의 기술을 삭제하고 ‘칠칠맞다’의 의미를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지 않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지 않다’로 바꿀 필요가 있다.

4.3.3. 시답다

‘시답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이며,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의 의미를 가진다. ‘시답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6> ‘시답다’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시답지 않-	-은(42), -게(13), -다는(5), -고(1), -다(1), -는(1), -아서(1), -테요(1), -기도(1), -으니(1), -을(1)
시답-	-고(1), -게(1)

‘시답다’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시답지 못-’으로 활용한 경우가 없다. ‘시답다’는 ‘시답지 않은, 시답지 않게’로 가장 많이 쓰인다. ‘시답다’는 긍정 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은 두 개만 있고 아래와 같다.

(23) 가. 성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자극의 그 자위행위마저 영 시답고 시들시들해지면 나는 또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낚싯대를 챙겨 들고 바닷가로 뛰어가는 습성을 익히게 되었다.

나. 「그래요. 왜 비싸요?」 한 아가씨가 시답게 말했다.

(23가)의 ‘시답다’의 앞에 부정격어 ‘영’이 있어서 ‘시답지 않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23나)의 ‘시답게’도 ‘시답지 않게’의 의미로 해석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시답다’가 ‘시답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 상당히 나타난다.

(24) 가. 이제 지극히 나의 기준상 시더운 맥주를 팔구천원에 먹고 싶지 않다. 차라리 칵테일이 낫. (네이버 블로그, ‘세 여자의 일상 이야기’, 2015.04.29., <강남역 BEER AND BOWL>, 삼총사)

나. 밖에서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하고 만나질 함께 보냈는데 부모님 반응이 그냥 별로 남자친구를 시답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네이버 지식iN)

그러나 인터넷에서 '시답다'는 '시답지 않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답다'는 긍정형으로 쓰일 때 항상 부정형의 의미가 나타나는 형용사가 아니다.

(25) 가. 이렇게 해서 양념도 제대로 안한 고들빼기 김치가 시답게 출현을 하고 그해 늦은 가을, 정상적인 고들빼기 김치가 탄생한 바, 1930년대의 일이다.

나. 당신은 갑자기 웬 시답잖은 '달타령'이냐고 눈 흘기며 타박하실 지도 모르겠네요. 그리도 한가하냐며 편잔을 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뭘 한다 한들 시더운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머니투데이 2015.12.04, <[광화문] 당신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이승형 사회부장)

4.3.4. 여간하다

'여간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아니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 앞에 쓰이는 형용사로 간주하였다. '여간하다'의 활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17> '여간하-'의 활용 양상

활용 양상	연결 요소(빈도)
여간하-	-여서(는)(147), -ㄴ(53), -여(18), -게(1), -어야(1)

'여간하다'는 '여간해서, 여간한, 여간하여'로 많이 활용하고 '여간하다'처럼 문장 종결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그리고 '여간하다'는 직접적으로 '-지 않-, -지 못-' 부정과 결합하지 않고 뒤에 부정소가 오거나 '-기 어렵다, -기 힘들다' 등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온다.

- (26) 가.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는 건 여간해서 마음먹기...어려운 일이다.
 나.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타이르는 것은 그 나이가 여간해서 겸손해지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여간해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라. 더욱이 지금 저 분은 이곳에 있지 않아서 프랜시스는 여간해서는 그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간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의 의미와 반대하여 ‘여간하지 않다’, 즉, ‘일반 수준’이 아닌 ‘대단하다’, ‘보통 수준이 아니다’와 의미가 같은 경우도 있다.

- (27) 여간한(≒대단한) 인내심이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여간하다’는 ‘여간하지 않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간하다’는 긍정형으로 쓰일 때 항상 부정형의 의미가 나타나는 형용사가 아니다.

- (28) 가. 여간한 성인 연기자 뽀칠 정도로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 여간한 잔소리는 으레 들을 것으로 알고 있다.

4.3.5. 의미 쏠림 현상, 의미의 전염

긍정형인데 부정형의 의미를 나타낸 현상은 아마 오용으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용이 점점 언중에게 퍼지게 되면 언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대수롭다’, ‘칠칠맞다’처럼 긍정형이 거의 다 부정형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오용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박진호(2007)의 ‘의미 쏠림 현상’, 조항범(1999), 이선영(2011), 석혜매(2018)의 ‘의미의

전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진호(2007: 211)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 표현 자체가 지니던 의미를, 그 구성 내의 특정 단어 혼자서 지니게 되는 현상을 '의미의 쓸림 현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마누라 바가지 때문에 못 살겠다' 중의 '바가지'는 혼자 쓰여도 '바가지를 굶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뭐 걸리는 일이라도 있니?' 중의 '걸리다'는 '마음에 걸리다'의 의미를 혼자 나타낸다. 박진호(2007)은 '명사+동사'의 구성을 중심으로 의미 쓸림 현상을 설명했지만, 긍정형과 부정형의 의미가 같은 형용사도 긍정형이 부정형의 의미를 혼자서 지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수롭다'가 '대수롭지 않다'와 같은 의미인 현상은 '대수롭지 않다'의 의미를 혼자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칠칠맞다'가 '칠칠맞지 않다'와 의미가 같은 현상도 '칠칠맞지 않다'의 의미를 혼자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 쓸림 현상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의미의 전염'으로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 연구는 조항범(1999), 이선영(2011), 석혜매(2018)이다. 조항범(1999: 1)은 긍정적인 의미(또는 중립적 의미)를 지니는 구성 요소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구성 요소의 영향을 받아 그 의미가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는 현상을 '전염'이라고 한다. 연구에서 '전염'에 의하여 의미 변화를 입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단어에는 본 절의 '대수롭다', 그리고 '별볼일, 별수, 분수, 싸가지, 얹치, 엉터리, 영락, 주책, 굳이, 얼토당토, 도저히, 별로, 고작, 심히, 채' 등 명사 혹은 부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선영(2011), 석혜매(2018)에서는 본 절의 '칠칠맞다'도 의미의 전염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선영(2011: 284)는 '칠칠맞다'가 '칠칠맞지 못하다, 칠칠맞지 않다'로 늘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다 보니 '칠칠맞다'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전염되어 '못하다'나 '않다'가 제거된 상태에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반의관계에 있는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어휘를 '모순어'라고 명명하였다. 석혜매(2018: 80)에서는 '칠칠맞지 못하다'와 같이 선행하는 요소들이 후행하는 '없-'와 '못하-' 등 부정사의 의미를 흡수하여 부정사가 없어도 원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로, '전염'으로도 '의미의 쓸림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본 절의 ‘대수롭다’, ‘칠칠맞다’는 모순어로 간주할 만하다. 이 형용사들의 긍정형과 부정형이 의미 차이가 없는 현상은 ‘의미의 쓸림 현상’과 ‘의미의 전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답다’, ‘여간하다’는 긍정형으로 쓰일 때 모두 부정형의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므로 ‘의미의 쓸림’, 혹은 ‘의미의 전염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제약 형용사 중에서 활용형에 제한적인 형용사와,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의 실제 쓰임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주로 탐구한 문제는 이들 제약 형용사들이 실제 쓰임에서 제약을 가지는지, 제약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제약 형용사는 제약의 종류에 따라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그리고 기타 제약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앞의 두 종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활용형이 제한적인 형용사의 실제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말뭉치를 통해 그들의 실제 활용 양상 및 그 빈도를 조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전 기술에서 벗어나는 쓰임을 보이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제약 형용사, 제약 경향 형용사, 제약이 없는 형용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약 형용사로 판정된 형용사의 활용형을 형용사 혹은 부사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형용사들은 다시 긍정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 표현과만 공기하는 형용사, 긍정 표현도 소수 가능한 형용사로 나누었다. 조사 과정에서 주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형용사 중 부정형과 긍정형이 의미 차이가 없는 형용사도 발견하였다. 이런 현상은 '의미 쏠림 현상'과 '의미의 전염'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한국어 제약 형용사 중의 두 가지 유형을 연구하였지만, 이러한 제약이 특정한 형용사들에서만 형성된 이유와 이러한 제약을 촉진하는 요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미진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I.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http://dic.daum.net/2019.01.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2019.01.1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88), 《현대조선말사전》, 백의도서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2019.01.14>.
조선외국문도서출판사, 중국민족출판사 [공]편(1992), 《조중사전》, 北京 : 조선의
국문도서출판사 ; 중국민족출판사.

II. 자료류

- 국립국어연구원 사전 편찬실(1997), 《통합 교열 지침》,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 국립국어연구원.

III. 논저류

- 강미진(2008), <현대 국어 불완전용언의 활용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근(1987), <보충법과 불완전계열의 문제>, 《어학연구》 23(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05-526.
김건희(2016), <(한)국어 형용사의 관형사형 구성 새로 보기>, 《한글》 311, 한
글학회, 123-164.
김선영(2005), <‘X참/잠-’ 형용사에 대하여>, 《형태론》 7(1), 23-44.
김선효(2002),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옥(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87-109.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김주상(2010), <용언 활용형에서 기원한 관형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경완(2007), <굳은 관형사형의 유형별 처리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 의미학회, 25-45.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한국언어학회, 71-99.
- 박진호(2007), <의미의 쏠림 현상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와 자료》, 태학사.
- 박현정(2010),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제약 활용형과 특수 활용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 김정남(2010),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용언의 제약 활용형과 특수 활용형 연구>, 진단학보 109, 345-368
- 배주채(2018), <불비용언의 목록 작성 시론>, 《한국문화》 8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5-321.
- 석혜매(2018), <한국어의 혼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1998ㄱ),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양명희(1998ㄴ), <부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1)>, 《한국어학》 8, 한국어학회, 173-206.
- 유창돈(1965), <관형사사 고구>, 《언어학》 31, 한국언어학회, 1-20.
- 유창돈(1975),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윤평현(1988),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307-318.
- 이선영(2011), <국어의 모순어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265-289.
- 이안구(2001),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6, 341-361.

- 이정택(2003),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 이종오(2000), <부정 완서법(litote negative)의 통사적 구조 연구>, 《EU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45-263.
- 이지영(2004), <‘못’과 결합하는 형용사의 의미 특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163-192.
- 임지룡(1983), <의미중복에 대하여>, 《배달말》 8, 35-60.
- 조항범(1999), <‘전염’에 의한 의미 변화에 대하여>, 《인문학지》 17,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42.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형용(2002), <국어 단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erman, Matthew, Greville G. Corbett, & Dunstan Brown(2010), *Defective Paradigms: Missing Forms and What They Tell Us*, Oxford University Press.
- Bloomfield, L.(1933), *Language*, London: Allen & Unwin.
- Bybee, Joan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中文摘要>

韩语制约形容词研究

-以词典中的语法信息为基础-

董晓艺

国语国文系 国语学

研究生学院

首尔大学

本文以韩国的《标准国语大辞典》中词条的语法信息为基础，将韩语中的制约形容词在韩国国立国语研究院的语料库的例句中连接的语尾种类及频率以图表的方式进行整理，并对其制约使用形态以外的例句进行观察，从而判断它们在实际使用时是否受到制约及受到制约的程度。

截止目前，对韩语中制约形容词的研究大多仅围绕活用形态受到限制的形容词进行展开。常将它们称为“不具形容词(불구형용사)”，“不完全形容词(불완전형용사)”，“不备形容词(불비형용사)”等。本文从语法的角度出发，把在形态上受到制约的形容词——“活用形态制约形容词”，以及在句法上受到制约的形容词中最典型的一种——“常与否定连用的形容词”一起作为研究对象进行了考察。

本文的调查显示，活用形态受到限制的形容词中有相当一部分没有受到明显制约，但是具有受到制约的倾向，因此将它们判定为“制约倾向形容词”。并且还有部分形容词由于可连接的语尾较多，没有体现出制约，因此将它们判定为“无制约形容词”。而完全受到制约的则被判定为“（完全）制约形容词”。“（完全）制约形容词”由于只以特定的活用形态出现，因此其特定活用形态容易被赋予形容词以外的词性，被视为冠形词或副词。本文将无“-이, -히”派生副词和无特定句型要求作为将形容词的冠形词形划为冠形词的标准，认为符合此标准的冠形词形具有划为冠形词的可能性。并且认为只以特定形态使用的形容词的副词形具有划为副词的可能性。

常与否定连用的形容词中部分形容词只能和否定连用，还有一部分虽主要与否定连

用，但在少数情况下仍旧可以与肯定连用。还有个别形容词虽以肯定的形态出现，却表达着其否定形态的意义，这种现象可以用“语义的沾染现象 (contagion)”和常在俗语或固定词语搭配中出现的“语义倾斜现象”来进行解释。

本文对韩语中语法上受到制约的形容词进行了细致的观察和统计，对实现制约形容词的系统化、规范化、精密化起到了积极的作用。并且通过研究展现了韩语形容词的多样性，以及形容词与冠形词、副词之间的关联性，对精细韩语词性分类具有一定的意义。

关键词：制约形容词，制约活用形态，形容词，否定，语义倾斜，冠形词，副词，语言学。

学号：2016-26079